

제2편 민초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



가난뱅이와 반쪽이

- 관음2리에 얽힌 이야기 -



퇴촌면에 있는 '관음리'라는 지명은 예전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이 법정 지명 외에 실제로 인근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으니 일명 '가난뱅이'였다. 관음리 중에서도 관음2리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말로 실제 마을 주민들은 잘 쓰지 않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지명을 써서 마을사람들이 매우 언짢아했다.

지금이야 전원마을로 각광을 받아 빌라가 들어서서 별천지를 이루고 있

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산골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던 곳이다.

관음1리까지는 그래도 들판이 비교적 넓어 논마지기 꽤나 지닐 수 있었지만 관음2리를 기점으로 천진암으로 들어갈수록 골이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농토가 부족한 탓으로 상대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이 마을은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았으므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해지는 일화가 많다.

어찌 되었든, 이 가난뱅이 마을은 다들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유독 김 씨네만 제법 먹고 살만해서 사람들은 그 집을 ‘김 부잣집’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김 부잣집 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두쇠인데다가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발톱에 때로 여길 만큼 우습게 알아 툭하면 거드름을 피우는 바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사곤 했다. 흉년이라도 들면 이 집 이자 쌀을 먹지 않는 집이 없었는데 그나마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리 비싼 이자를 주어도 쌀을 꾸어주지 않았으므로 누구도 드러나도록 불만을 표시하진 못했다. 그런데 그가 붙여먹는 이자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다가 시일을 어기면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해야 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날로 살림이 궁핍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김 부잣집은 나날이 살림이 윤택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가난뱅이로 살았다 해서 이 마을을 ‘가난뱅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이름을 잘 쓰지 않았다고 하는 데 그 계기가 된 이야기가 한 편 전해져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 마을엔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살림이 워낙 궁색한 지라 자나 깨나 먹고 사는데 골몰하느라 자식을 바랄 여지도 없이 근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산다는 게 큰 영화를 바랄 일도 아니고, 그저 아들 딸



낱아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지라 해가 갈수록 자식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살림이 궁색하니 삼신할미도 자식을 점지해 주시지 않으시는구먼.”

“양자를 들일 형편도 아니고, 이다음에 죽어서 제사 밥도 못 얻어먹겠네. 살아서도 배를 굶고 죽어서도 배를 굶고, 어쩔 이리 지지리도 박복한지…….”

다른 집들은 대추나무 연 걸리듯 자식들이 많아 입 하나 털기 위해 별수단을 다 쓰는데, 이 부부는 그런 집이 마냥 부럽기만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자기 운명이러니 하고 신세타령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혼인 한 지 꼭 십년 만에 이들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 먹을거리가 변변치 못해 영양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으나 산열매라도 모양 좋은 것들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열 달을 보냈다.

드디어 만삭이 된 아내가 몸을 풀었다. 첫닭이 화를 치고 여명이 붉게 퍼지고 있었다. 십년 만에 얻은 자식이라 이웃에서도 경사 났다고 덕담을 건네고 남편은 싸리문에 숯과 고추를 듬성듬성 엮어 금줄을 매며 행여 부정이라도 탈세라 유난을 떨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는 반쪽 수족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용팔’이라는 이름을 지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쪽’이라고 불렀다. 그의 부모들은 남들이 그리 부르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도 예부터 이름을 천하게 부르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 그 말로 위로를 삼고 있었다.

반쪽이는 비록 팔다리 반쪽을 쓰지는 못하지만 심성 곱고 부지런한데다 커갈수록 힘이 장사여서 못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특하면 그를 불러 힘든 일을 해결하곤 해서 실상 반쪽이라는 이름은 애칭이 될 정도였다.

“반쪽이, 자네 오늘 틈 좀 나나? 우리 쟁기가 부러졌는데 손 좀 봐줄라나?”

“그러쥬 뭐.”

“전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설라문에 축대가 무너졌어. 어티까, 손 좀 봐줄라?”

“알았어유.”

신기할 정도로 한 쪽 팔로 못하는 것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나이 서른이 가깝도록 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으니 그의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러나 정작 반쪽이는 예쁜 며느리를 보게 해드릴 터이니 걱정 말라며 알 수 없는 호언장담을 하곤 했다.

반쪽이에게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이 있었으니 한번 그에게 잘못 걸리면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도 혼쫓이 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한 편으로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다만 김 부자만 그를 병신이라 여겨 걸핏하면 멸시하기 일쑤였다. 반쪽이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김 부잣집 일은 일체 거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반쪽이를 보고 김 부자는 걸핏하면 말을 만들어 빈정대곤 했다.

“아무리 힘이 세면 뭇하. 장가를 갈 수 있나, 전답을 장만할 수 있나. 게다가 성깔하곤 드럽기 짝이 없으니 앞날이 뻥 하지 뭐.”

김 부자는 면전에서든 무시하는 말을 일삼을 정도로 어른다운 면모라곤 조금도 없는 위인이었다. 반쪽이는 어떤 일로든 걸리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버르고 있었다.

김 부잣집에는 두 아들과 막내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딸인 연옥은 이집 식구와 다르게 어찌나 심성이 곱고 용모가 빼어난지 김 부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감생심 반쪽이가 이 연옥 남자를 마음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 처지를 아는지라 반쪽이의 상심은 날로 늘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부자가 그만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곤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평소 반쪽이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던 김 부자는 경망스러움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만 것이다. 사람 깔보기를 재미로 알던 그가 치도곤을 당할 때가 된 것이다.

그의 집에는 씨앗을 저장해 두는 돌로 된 커다란 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뚜껑을 열려면 힘 센 장정 너 댓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다.

“이거 반쪽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녀?”

“그러게 원, 우리네 힘으로는 턱도 없겠네.”

평소 김 부자가 반쪽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지라 사내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둘의 관계가 원만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반쪽이를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은근히 청을 넣게 되었다. 그러자 김 부자는 반쪽이가 힘이 세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토록 무거운 돌을 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느냐고 비아냥거리기 위해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만 것이다.

“반쪽이놈이 혼자 저 독 뚜껑을 열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아니, 우리 연옥이를 그놈과 혼사를 시키겠네. 그런데 그럴 리야 있겠나?”

그 말은 금세 반쪽이에게 전달되었고, 반쪽이는 언젠가 혼을 내주려던 참이었는데 이게 웬 황재인가 싶어 신바람 나게 달려왔다.

“참말이지유? 내가 저 뚜껑을 들면 연옥 아가씨와 혼례를 치를 수 있는 거쥬?”

“속기만 하고 살았느냐?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반쪽이는 다짐하는 뜻으로 연거푸 몇 번을 확인했다.

“쌀밥 먹고 흰소리 할까보냐. 네 놈이 아무리 힘이 세기로 저걸 어떻게 든 단 말이나. 대신 내가 들지 못하면 넌 한 달 동안 우리 집 일을 거저 해 주는 거다. 어떠냐?”

김 부자는 공짜로 일을 시켜먹을 수 있으리란 기대로 오히려 혼자 즐거워했다. 반쪽이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쾌재를 불렀다.

이 소문은 삼시간에 마을로 퍼졌고,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예서제서 모여들었다. 반쪽이는 인근 마을까지 일부러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을 벌일 참이었다. 사람들은 과연 반쪽이가 돌을 들어 올릴 것인지, 그렇게 되면 김 부자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정말 반쪽이와 연옥이가 혼사를 치르게 될지, 흥미진진한 상황을 놓고 각기 나름대로 점치느라 떠들썩했다.

“다들 똑똑히 보셔유. 제가 만약 이 뚜껑을 열면 연옥 아가씨와 혼사를 치르는 거예유. 탄 소리 하기 없기여유.”

반쪽이는 관중을 행해 말로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한쪽 다리로 꺾충 돌 쪽으로 가더니 우선 고함을 냅다 질렀다.

“아함-.”

힘을 모으기 위해 집중하는 중이었다.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하늘을 울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부자는 그다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반쪽이의 힘을 아는 지라 큰 일이 벌어질 거라며 침을 꿀꺽 삼키는 가운데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다.

반쪽이는 그 전부터 행동을 개시할 때는 스스로 ‘반쪽이가 나타났다’를 외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이곤 했었다.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사단이 나고야 말았다고 사방에서
쑥덕거렸다.

반쪽이는 독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워낙 뚜껑이 무거운지라 들 수 있을
지 어쩔지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죽을 지경이었다. 주위엔
긴장감이 팽팽했다. 그 사이 바람이 반쪽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번
훑고 지나갔다.

“반쪽이가 나타났다.”

반쪽이의 고함이 하늘을 찢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순간 고함 소
리와 함께 돌 뚜껑이 반쪽이에 의해 번쩍 들어 올려졌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쳐대며 환호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옳지, 옳지 -, 해냈다. 반쪽이가 해냈다.”

“시상에, 어찌면 저리 힘이 셀까?”

“김 부자가 이제 꼼짝없이 사위 삼게 되었구먼.”

사람들은 신이 난다는 듯 서로 한마디씩 건네며 수근거렸다. 사방은 온
통 반쪽이를 응원하는 소리와 김 부자를 걱정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김 부
자는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다 금세 안
색을 바꾸며 탄 소리를 했다.

“자네가 하도 힘이 세다고 해서 내 그냥 한 번 해본 걸세. 내 아무 말 안
했네. 알았지?” 후한이 두렵긴 했지만 연옥이를 반쪽이에게 시집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반쪽이는 화가 치밀었지만 장차 장인이 될 어른인지라 대 놓고 화를 낼
수도 없어서 그저 싱긋 웃기만 했다.

그날부터 반쪽이는 연옥 아가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런 경을 칠 놈, 감히 누굴 제 색시 삼는다는 게야.”

김 부자는 자신이 했던 약속은 저 뒤로 물려 놓고 길길이 뛰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쪽이가 행여 행악을 부리진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쪽이는 구체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삼월 삼짇날 반쪽이가 드디어 연옥 아가씨를 데려갈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관음리를 넘어 퇴촌지역으로 널리 퍼졌다. 김 부자는 비싼 돈을 주고 인근에서 힘 꽤나 쓴다는 장정들을 사서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다.

“반쪽이가 나타났다!”

“…….”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어두운 골목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수군거리며 문단속에 들어갔고, 길을 가던 사람들은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했다.

“뭘 일이어?”

“그러게, 누가 또 반쪽이 비위를 건드렸나부지 뭐.”

반쪽이가 고함을 치는 날이면 누군가 몇 사람쯤은 치도곤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촉각을 세우고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때와는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잣집만 오금이 저리도록 온 집안 식구가 긴장을 했다.

삼짇날 반쪽이는 집 근처에 있는 우물 근처로 갔다. 미리 엄포를 놔서 겁을 준 다음 긴장이 느슨해지면 연옥 아가씨를 업고 나오리라는 심산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큰소리를 얻기 위해 우물의 공명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물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벼락같이 고함을 친 뒤 ‘쿵’ 하고 우물 벽을 세게 칠 심산이었다.

“반쪽이가 나타났다.”

반쪽이의 고함 소리는 우물 안에서 울려 하늘로 멀리 퍼져갔다. 마치 황소 울음소리처럼 깊고도 울림이 큰 소리였다. 어찌나 크고 깊은지 인근마을까지도 들릴 정도였다. 그 바람에 김 부자는 보초를 세우고도 별별 떨게 되었는데 의외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오히려 노심초사하게 되었다.

반쪽이는 똑같은 행동을 열흘이나 연거푸 했다. 그러자 김 부자는 긴장감이 풀려 나중에는 별 미친놈 다 보겠다면 별 일 없을 거라고 여겨 장정들을 돌려보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장정들을 사느라 들었던 돈이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다.

“실성한 놈 같으니라구. 공연히 사람을 놀리고 난리여. 그러면 그렇지 제 깡 놈이 무슨 재주로 우리 연옥이와 혼례를 치뤄.”

그로부터 닷새 후였다. 드디어 반쪽이가 작전을 개시할 날이 온 것이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닭을 너머 집안으로 기습을 했다. 열흘이나 긴장을 하고 잠을 설쳤던 탓인지 가족들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곤한 잠에 빠져들었다. 김 부자는 곰방대를 문 채로 잠이 들어 있었다. 반쪽이는 살금살금 집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부인 손에 성냥을 들려 놓았다. 그 옆방에 있는 큰 아들에게는 장구를, 며느리에게는 고드렷들을 들려 놓았다. 이집 작은 아들은 방귀쟁이로 소문이 나서 한 번 방귀를 꾸기 시작하면 줄방귀를 꾸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저 혼자만 잔뜩 먹어서 그렇다고 놀리곤 했었다.

반쪽이는 가족 모두의 손에 도구들을 쥐어놓고 독 안으로 숨었다. 날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연옥의 방은 집 가장 안쪽에 있었다.

“반쪽이가 나타났다-아. 반쪽이가 연옥 아가씨를 업어 간다.”

캄캄한 하늘은 반쪽이의 고향으로 찌렁찌렁 울렸다. 김 부잣집 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었다. 이때 연옥 어머니가 불을 켜기 위해 성냥을 찾는데 마침 손에 들려있자 성냥을 그어 등잔에 불을 붙인다는 것이 허둥대다 그만 남편의 수염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삼시간에 빠지직 소리를 내며 수염은 화르르 타올랐다. 이에 놀란 며느리가 당황한 바람에 불을 끈답시고 손에 들린 고드렛돌로 사정없이 시아버지 턱을 두드렸다. 고향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아들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저지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찾았는데 마침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장구채여서 얼결에 별떡 일어나 장구채를 휘둘렀다. 언제 걸려 있었는지 어깨엔 장구가 매어져 있었다. 장구소리가 둥-따닥 하고 온통 집안에 울렸다. 이 소동에 깜짝 놀란 작은 아들이 대청으로 뛰어나오는데 난 데 없는 줄방귀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폼바, 폼바……. 폼바, 폼바…….”

방귀는 장단을 타고 제법 크게 터져 나왔는데, 그 바람에 온 가족이 그만 방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행동을 멈추려 해도 멈춰지질 않을뿐더러 점점 더 흥이 가해져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다. 수염이 그슬린 김 부자는 곱방대를 들고, 그의 아내는 성냥갑을 들고, 아들은 장구를 치며, 또 며느리는 고드렛돌을 휘두르며, 작은 아들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줄방귀 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느라 상황은 가관이 아니었다. 아무리 동작을 멈추려 해도 멈춰지질 않았다. 그러는 동안 반쪽이는 온 집안을 햇불로 대낮같이 밝혀놓고 유유히 집안으로 들어가 연옥 아가씨를 안고 나올 채비를 했다.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어느새 달은 서서히 떠올라 사방이 환하게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소동이 난 김 부자네로 일제히 모여들었다. 반쪽이가

연옥아가씨를 안고 나오는 동안 집안 식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다.

“언제 저렇게 됐다?”

“그러게 말여. 세상 일 참 모른다니까.”

“인제 반쪽이가 사위가 되었으니 김 부자도 함부로 말하진 못하겠구먼.”

“반쪽이가 마침내 사단을 냈구먼.”

마을 사람들은 예서제서 수군거리느라 달이 기우는 줄도 몰랐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뻔히 보고도 김 부자는 어찌 손 쓸 수가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반쪽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다. 또 되 물린다고 해도 이젠 연옥이를 누군가 데려 갈 것 같지도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김 부자는 혼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초례를 지내는 날은 해가 찬란히 빛났고 꽃들도 천지에 만발했다. 연옥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아리따웠고, 사모관대를 쓴 반쪽이도 인물이 흰했다. 비록 반신이 불편했지만 용모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사내다웠다. 김 부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하는 연옥을 위해 눈 열마지기를 떼어 주었고, 반쪽이 부부는 성실히 일해서 점점 재산을 불려 나갔다. 마을 사람들도 그 이후부터는 그를 반쪽이라 부르지 않게 되었다.

그 후 그들 부부는 자식 낳고 부모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부부의 인품이 워낙 넉넉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서로 돕고 사는 바람에 극도의 가난은 면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서로 합심하여 벼섯도 기르고, 벌도 치고, 곡식들도 서로 나누곤 해서 오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동네 어귀에다 정자를 세우고 느티나무를 심어 쉴 곳을 만드는 등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었다.

인근 사람들은 그 이후론 이 마을을 가난뱅이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 이 따금 오랜 습성 탓으로 옛 지명 그대로 부르는 이들도 있기는 하나 그런 말에도 이젠 여유 있게 웃어넘길 정도로 살림이 대부분 넉넉해졌다. 요즘도 느티나무는 마을 중앙을 지키며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지금은 원주민이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나 ‘관음리’라는 세련된 지명을 쓰고 있다. 세월 뒤편으로 멀어진 옛 이야기를 재미있게 기억하는 이가 한 둘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자료제보 : 마을주민(익명)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6

〈집필 : 이종남〉

두터골댁의 비밀



두터골댁이 자리보전을 하고 누운 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혼곤히 잠이 들었다가 가위에 눌렸는지 두 손으로 두어 번 허공을 찌다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머리맡에 놓인 머느리가 떠놓은 자리끼 냉수를 한 모금 마시며 머리를 갠웃거렸다.

“이상한 일이구면. 요즘 들어 어머니가 꿈에 자주 나타나시는 걸 보면.”

옆에 잠든 영감은 새벽인데도 한밤중처럼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무

심히 잠들어 있었다.

“무에 그리 고단 하신구. 낮에도 시간만 나면 주무시면서…….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데 저 양반을 보면 다 헛말이여. 나두 저렇게 잠 좀 자 보았으면 원 소원이 없겠구먼.”

아내의 부스럭거림에 부스스 일어나 방문을 열고 새벽을 맞으려는 영감의 등 너머로 앞산의 갈대가 한줄기 새벽빛을 받아 하얗게 부서지며 춤을 추고 있었다. 비몽사몽 꿈속에서 두터골댁은 시어머님을 만났다. 선녀처럼 하얀 옷을 정갈하게 입고 소리 없이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하며 어디론가 어머니가 가고 있었다. 물결처럼 출렁이며 춤을 추는 역새꽃 속으로 사라지는 어머니를 쫓아가느라 그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귀밑머리에 서리가 내리면 누구든 한번쯤은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게 마련인가. 역새꽃은 활짝 피어도 이승의 꽃인지 저승의 꽃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누군가 말했다. 모든 만물은 화려하게 피어나 본체의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지듯 인생도 그러한 것인지 요사이느 두터골댁의 꿈속에 어머니가 자주 뵈었다.

“아하 그렇구나!”

시어머님이 꿈에 보임은 너도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고단한 속세의 인연은 그만 접고 나와 같이 있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마음 속에는 아직도 생의 애착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느꼈는데 몸은 가랑잎처럼 말라가니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닌가 싶었다.

“영감 어멈 좀 불러주세요.”

“그러구려, 어멈아 방에 좀 들어가 보아라.”

“네, 아버님.”

밖에서 잠시 아침준비를 하던 며느리는 황급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



다. 그렇게 자상하던 어머니가 노환으로 병석에 누우신 지도 벌써 몇 달째다. 아들 내외는 멀리도 못가고 가끔씩 어머니 방을 들러 살피고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도록 정성껏 병구완을 했지만 병이 차도를 보이지 않고 점점 쇠약해지심을 안타까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경기도 광주 절골이라는 마을에 멀리 분원리 강을 건너 시집을 온 두터골택이라 불리는 아낙이 살았다. 절골은 고려(高麗) 때에 이 마을에서 태어난 박 모 장군이 어느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는데, 그 시신(屍身)을 장군의 애마(愛馬)가 몰고 집으로 와서 장사를 지낸 뒤에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절을 세웠다고 한다. 그 뒤로 이 마을을 절이 있다는 뜻으로 ‘절골’ (寺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절골은 지금은 장지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행정구역이 전지(前枝 앞가지)·후지(後枝 뒷가지)·장내(牆內 담안)·사동(寺洞 절골)·태봉 등 5개 동리로 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행정구역을 축소하면서 장내(牆內)의 장과 전지(前枝 앞가지)·후지(後枝 뒷가지)의 지를 붙여 장지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평안히 계세요. 소녀 하직인사 올리옵니다.”

철없이 싱글벙글하며 색시가 하는 대로 부모님께 같이 절을 하는 신랑을 곁눈질로 흘겨보며 새댁은 그저 닭의 똥 같은 눈물만 나왔다.

“노처녀로 살면 어때,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 왜 하필 강 건너로 시집을 가야한담!”

길가에 굴러가는 개똥벌레만 보아도 웃음이 나오고 낙엽 하나만 바람에 뒹굴어도 정겹고 반가운 것이 고향인데 어떻게 멀리멀리 시집을 가야한담. 막막한 마음에 친정에서 시집가서 잘 살라고 바리바리 싸주는 보따리도 보

기 싫어 외면하고 서방님이 이끄는 대로 시집을 향하여 가는 새댁은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며 배를 건네줄 사공이 기다리는 강가로 향했다.

점점 멀어지는 고향의 산과 들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부서지는 물결과 노를 짓는 사공의 무심한 손놀림을 바라보며 두터골댁은 하염없이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강을 건너면 언제 친정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 할수록 서럽기만 하였다. 하루를 꼬박 걸려서 남종면 분원리 강을 건너 경기도 광주 절골이라는 물 설고 낮 설은 곳으로 시집을 왔으나 살림이 넉넉했던 친정의 형편과는 달리 식구는 많고 살림이 궁색하였다. 층층시하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힘이 들어 서방님의 안쓰러운 시선마저 보기 싫어졌다.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도 부지깽이로 불씨를 살리면서도 불씨 속에 시선을 둔 채 새댁은 행주치마에 눈물을 찍고 또 찍었다.

두터골댁의 친정은 형제자매가 많고 당숙이 일곱 분이라 사촌도 많아 늘 집안에 행사가 많았다. 많은 식구들 속에 막내딸로 자란 남자는 집안의 귀염둥이로 자라 철이 없었다. 천방지축 놀던 남자도 세월이 흘러 나이 열다섯이 되었다. 나이 열다섯이 되면 계례(笄禮)식이라고 하여 지금의 성인식처럼 식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 형제가 여덟이요 당숙이 일곱이다 보니 초상이 일년이면 몇 번씩 일어나 상복 벗을 날이 없이 그만 열여덟이 되고 말았다.

옛날에는 열다섯부터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는 시절이라 남자의 나이 열여덟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갈 수 없었으며 친척이 많다보니 그만 열여덟이 되어서야 겨우 계례(笄禮)식을 올리게 되었다. 나이 열다섯이 넘었어도 마을에 친척이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계례(笄禮)식을 올리지 못해



매파가 중매를 설 수 없어 그만 혼기마저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나이 열다섯에 노처녀 소리를 듣고, 나이 이미 열여덟에 겨우 계례식을 치렀지만 이웃마을 어디서고 남자에게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다. 막내딸의 혼기를 놓친 남자의 부모님은 여간 애가 타는 것이 아니었다. 이웃마을 여기저기 매파를 넣어 보아도 남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금슬 좋은 남자의 부모는 마루에 앉아 휘영청 뜬 보름달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영감, 올해가 지나면 우리 막내가 열아홉이 되는데 어찌면 좋소?”

가만히 듣고 있던 영감이 귀엣말로 속삭였다.

“임자, 내가 저 멀리 강 건너로 매파를 한번 넣었으니 기다려 봅시다.”

“강 건너요? 예구머니나! 강 건너면 너무 멀지 않수. 아니 그런데 우리 아이와 걸 맞는 짝이라도 있대요?”

“마침 경기도 광주 퇴촌 가는 길목에 도마리라는 마을이 있소. 거기 사는 최 씨가 마침 왔기에 부탁을 했소.”

“그래요, 아이구 고마워라. 그런데 집안 형편은 어떻대요?”

“그런데 집이 좀 가난해서 ……”.

“이곳은 이미 짝이 없으니 어찌겠수. 멀리라도 ……”.

그리하여 남자는 경기도 광주 장지동 절골로 시집을 오게 되었다.

막내딸로 애지중지 자라온 두터골댁은 시할머님까지 계시는 층층시하 시집살이와 가난한 살림살이에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야위어 갔다. 게다가 시어머님은 몸이 너무 약해 매일 자리보존을 하고 계셨고 시아버님 또한 성격이 꼬장꼬장하여 매사에 덜렁대고 철없는 며느리를 구박하기에 바빴다. 두터골댁은 친정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매일 뒤뜰 장독대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분원리 강을 바라보며 친정을 그리워하고 강을 건너는 꿈을 밤마다 꾸게 되

었다. 궁색한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거기에 시어머님은 매일 며느리만 보면 병약한 몸에 짜증이 나는지 구박하다 못해 친정에 가서 살림을 더 배워오라고 하여 그만 집밖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두터골댁은 어린 아이를 들쳐 업고 걸어 분원에 도착해 배를 타고 꿈에 그리던 친정을 가게 되었다. 친정에 온 두터골댁은 울면서 하소연을 하였다. 힘들어서 시집살이 못하겠다는 딸의 하소연에 막내딸을 귀애하던 자상한 친정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궁리 끝에 딸을 가만가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비방 하나를 일러주었다.

“애 아가, 네가 그렇게 고달프다니 이 애비가 마음이 아프구나. 애비가 이른 대로 한번 해보련? 이 애비가 쌀을 줄 테니 인절미를 해서 저녁마다 한 개씩 드리고 이 닭을 가지고 가서 알을 낳으면 계란 하나씩 꼭 삶아 드려라. 그러면 시어머님이 체기가 더해서 얼마 못사실 게다.”

철없는 두터골댁은 친정아버지가 준 쌀과 닭을 싸들고 그길로 시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밤이면 꾸벅꾸벅 졸면서도 인절미를 해서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들여보내고 아침이면 계란 한 개를 삶아 어머니 밥상에 놓아드렸다. 병치레만 하던 어머니는 그렇게 여섯 달이 지나자 기력을 회복하고 일도 간간히 도와주었다. 꼬장꼬장하던 시아버님은 어머니의 병이 날마다 나아지자 연방 웃음기를 머금고 ‘우리 아가’ 하면서 귀여워하셨다.

“아니 어찌면 좋아!”

곰곰 생각하다가 다시 멀고 먼 분원리 강을 건너 친정으로 갔다. 옛날에는 탈것이 없어 분원까지 걸어서 가거나 달구지를 타고 가서 강을 건넌기 때문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친정 길은 멀고도 험하였다. 수심이 가득하여 친정에 온 딸을 보며 이번에도 친정아버지는 다시 이렇게 일러주었다.

“애 에미야, 이번에는 또 어떻게 왔느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안계시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머님을 살리는 비방을 알려주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두터골댁은 친정아버지가 일러 준대로 이번에는 인절미를 하루에 두 개씩 드리고 밤도 몇 알씩 찌서 드리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 속병이 다 없어지고 아버님의 성격도 어머님의 병 고침과 동시에 너그럽고 자애로운 시아버님으로 변하게 되었다.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니 자라나며 재물을 떠는 아이와 함께 저절로 웃음꽃이 피고 화목한 집안이 되어갔다. 신랑은 장가 잘 든 덕에 어머님의 병이 나았다고 싱글벙글하며 부모님 몰래 극진히 아내를 위해주었다.

그렇게 철없던 막내딸 두터골댁은 세월이 가면서 몸도 튼실해져 자녀를 더 낳고 동네일도 척척해내는 일등 어머니요 며느리가 되어갔다. 이웃마을과 길쌈대기를 해도 꼭 일등을 하고야 마는,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후덕한 일꾼이 되었다. 두터골댁의 시어머님 또한 아이들을 잘 건사해 주고 살림을 거들어 주어서 어머님을 뵈을 때마다 철없던 때의 경거망동이 죄스러워 홀로 가슴을 치며 더욱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효부가 되었다. 이웃 어른이 돌아가시면 어찌나 눈썰미가 좋은지 수의도 돌아가신 분의 몸에 딱 맞게 척척 해내는 솜씨로 이웃 마을까지 불러 다녔다. 어머니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로 알고 동네방네로 다니면서 며느리 칭찬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다. 풍문에 어머니의 칭찬소식을 들으면 젊었을 적 잠깐 잘못 먹은 마음이 생각나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비밀이 생기게 되었다.

앞가지마을에는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민속놀이로서 대보름 줄다리기가 있다. 남녀가 편을 갈라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는 동네 사람을 하나로 묶는 좋은 놀이였다. 정월달이 되면 초승부터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줄을 만들기 위해 짚도 걷고, 쌀도 거두어 술을 담그고, 걷어온 짚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줄을 꼬았다. 줄은 굵은 줄과 가는 줄이 있는데, 굵은 줄은 지름이 15cm 정도의 것을 다섯 가닥을 한데 모아 약 60m 정도의 길이로 만들고, 1m 간격으로 가는 줄로 묶고 사람이 쥐고 당길 줄 끈을 붙여놓는다. 줄의 한 복판에는 나무로 만든 버팀목을 끼워놓게 된다. 줄을 꼬아 만드는 작업은 보통 2~3일이 걸리는데 줄을 만들 때는 온 동리 사람들이 모여 풍악을 울리면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흥겹게 줄 만드는 작업을 한다.

두터골택을 비롯하여 보름날이 되면 아침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 농악을 울리며 집집이 다니면서 액운은 물러가고, 복을 달라고 기원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소원을 빌어주는 지신밟기를 한다. 초저녁이 되어 달이 뜰 무렵이면, 앞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면서 달이 뜨는 것을 보고 새해의 풍년이 올 것인가 흉년이 올 것인가를 점쳐보고, 한바탕 풍물놀이를 하였다.

매년 돌아오는 이런 명절이면 두터골택도 혼자 달님을 쳐다보며 지난 날 자신이 잠깐 잘못 먹었던 마음을 달님에게 털어놓으며 달님에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다. 어느 해 이 마을에 난리가 나게 되었다. 전쟁은 여인들의 못 견딜 수난사이기도 하였다. 부모님은 연로하고 남편은 나라를 위해 싸움터로 나가고 농사는 지어야겠다고 두터골택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마을의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

“자 이제 나라에 난리가 났으니 우리도 정신을 더 차려야겠소. 그렇다고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소.”

두터골택의 진심어린 말에 온 마을 아낙들은 바짝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남정네가 전장에 나가고 없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되겠 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없는 동안 살림을 해야 되니 우리 힘을 합칩시다. 자, 저를 보세요.”

두터골댁은 이렇게 말을 하고 얼굴에 숫검땀이를 바르고 뚱장군을 어깨에 메고 들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 온 마을 부녀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는 두터골댁을 보며 이 마을 부녀자들은 불상사를 당하지 않고 넘보는 남정네커녕 슬슬 피하여 옆에도 못 왔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여 부녀자들은 항상 가슴에 고춧가루를 비상으로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여차하면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위험을 피하리라 그런 방법도 강구하곤 했다. 한번은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난리 통에 어느 어린소녀가 산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구해 준 것이 못내 한이 되어서 더욱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다고 했다.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겪으며 두터골댁은 점점 현모양처에서 인정이 많은 자애로운 중년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장에서 어떤 구걸하는 노인을 데려오게 되었다. 이 노인은 난리 통에 식구를 잃고 헤매다 길을 잃고 오춤사태까지 난 병든 몸이었다. 온 방안에 지린내가 진동하여 집안 식구들과 옥신각신 다투었지만 두터골댁의 인정에 오춤 지리는 노인을 겨우내 봉양하여 봄에 내보내니 몇 년 만에 자식과 함께 다시 찾아와서 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다. 두터골댁의 인심이 후하여 지나가다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이 여럿 있었으며 온 겨울을 같이 지내다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못사는 사람들을 담 너머로 슬그머니 불러 떡살을 한말씩 주기도 하였고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의 친구 분들을 모셔서 노인공양하기를 즐겼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두터골댁도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다. 어느 달 밝은 밤 두터골댁은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며느리를 슬며시 방으로 불러들였다.

“어머니 저예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꼬옥 쥐며 바라보았다. 두터골댁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문을 열었다.

“아범을 업고 외가에 갔다 온 게 한참 되었지?”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범을 업고 분원리 강을 건너서 외가에 가셨었다고요,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이었다구요.”

“그래그래 어멈, 하 오래된 일이라 어멈이 내 이야기를 기억 못하는 줄 알았지.”

두터골댁은 이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친정 부모님을 그리운 마음으로 떠올리며 회상에 젖었다. 그때 이곳으로 시집 올 때도 바람이 불고 갈대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던 날이었다. 바로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꿈속의 친정 일 뿐 두터골에 뿌리가 박혀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두터골의 큰 상수리나무처럼 상징이 된 몸이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었는지! 친정이 너무 멀고멀어서 일 년에 한 번씩도 가지를 못했지.”

두터골댁은 마른 한 손을 뺀어 며느리의 다른 손을 꼭 잡았다. 고단한 시집살이에 잔주름이 실금처럼 자리 잡은 얼굴을 물기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에미도 이제는 많이 늙었구면, 그리도 얼굴이 곱더니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에미를 친정에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하구먼.”

“어머니, 그래도 저는 강 건너가 아니라서 어머니보다는 많이 다녔지요.”

“그래, 음 그랬나?”

“그런데 어머니, 이제는 어머님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여기가 제 집인걸요.”

충충시하 시집살이를 견디면서 항상 공손히 며느리의 도리와 집안 살림을 해준 며느리가 더 없이 고맙고 믿음직스러웠다.

“에미야 고맙다, 고마워.”

두터골택은 며느리에게 자기가 시집을 와서 너무 힘이 들어 시어머님께 잠시 철없던 생각을 했던 것을 나중에 깨닫고 평생을 시어머님 아버님께 속죄하며 살 것을 달님에게 맹세하며 살았노라는 마음속의 비밀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어멈아, 이 못난 시에미를 잘 보살펴주고 집안을 잘 이끌어주어서 고맙다.”

두터골택은 며느리의 두 손을 꼬옥 잡고 비밀을 다 말 한 뒤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평생을 마음한번 잘못 먹은 그때의 행동을 뉘우치며 부모님에게 극진한 효성을 다하고 며느리에게 한 점 실수를 털어놓고 떠나간 효부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절골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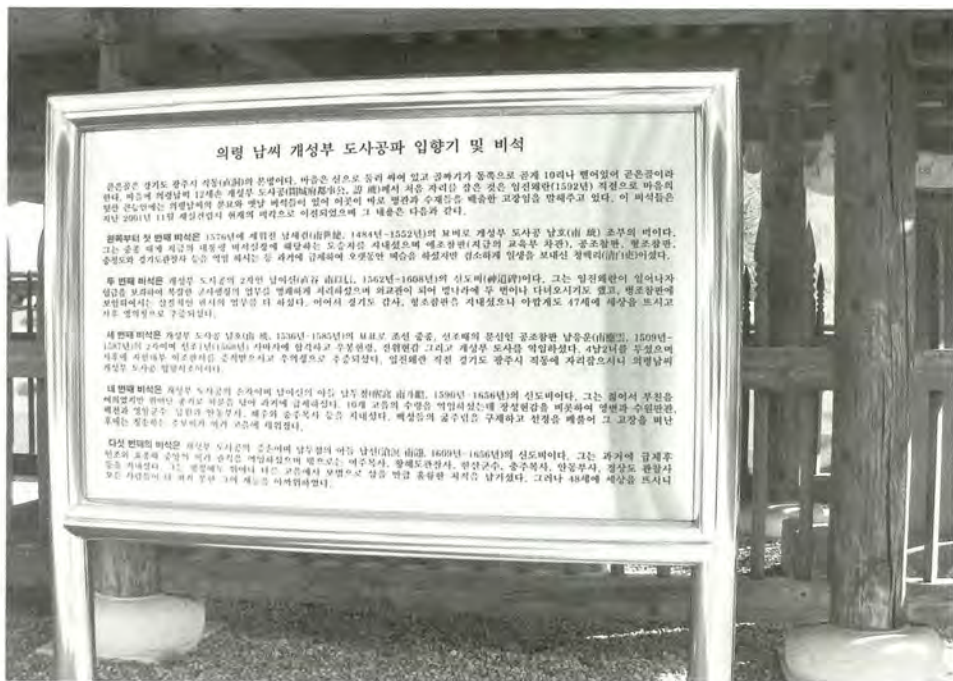
참고문헌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6

장지3동 신씨할머님 외

〈집필 : 김영희〉

곧은 골엔 남씨들이



아득한 옛날에 경기도 광주 곧은 골이라는 마을에 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고 청정한 광주의 경안리에서 10리를 가면 임금님의 태를 묻었다는 명산 태봉이 나오니까, 곧은 골이라는 지명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십리나 골짜기가 곧고 길게 나 있어서 곧은 골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는 직리 직곡 곧은 골이라고 불려왔다가 지금은 직동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지명은 각처에 그 지역에



맛게 아름다운 이름이 많지요. 이곳 직동도 곧은 골 하고 부르면 참 정답게 느껴진답니다. 사람들의 순박한 향기를 담은 곧은 심성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남씨의 세거지였던 솫 골은 예전에는 너른 고을 광주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남시의 태평동으로 불리지만 옛날에는 솫골이라 불렀다는군요. 서울과 가까운 거리이긴 하나 교통이 불편하여 나룻배를 타고 서울로 가고 오며 솫을 만들어 팔아서 사람들은 생계를 꾸렸습니다. 현재 성남경찰서 주변을 아랫솫골, 태평동 신흥동 수진동 일부를 윗솫골이라 했답니다. 아랫솫골은 남씨가 많이 살았지요. 전국에 솫골이라는 지명이 많기도 했답니다. 경기 광주 탄벌동도 전에는 탄벌리 솫가마 골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곧은 골 남씨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란을 가야겠구나, 걱정하고 가다 멈춘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 곧은 골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 마을에는 12대조인 개성도사공의 산소부터 모셔져 있었으나 그 외의 산소도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성도사공의 아들인 병조참판공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산골이 깊어 아무도 찾을 수 없어 '피란 곳'이라 불리는 곧은 골로 가족을 피란시키고는 즉시 선조대왕의 뒤를 따라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의령 남씨(宜寧南氏) 중 처음 들어와 자리를 잡은 분이 개성도사공이며 그 때가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을유년(1585)년에 세상을 뜨고 그해 7월에 광주 직동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곧은 골은 풍수상으로 명당이 많아서

인지 벼슬한 이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개성도사공의 아들 병조참판공의 손자는 북인(北人) 팔문장(八文章)의 한분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창명공(滄溟公)이지요. 그의 신도비를 보면 고손자까지 군수 현감을 지낸 분이 수십 명이고 문과에 급제한 사람도 17명, 판서벼슬을 한 사람이 여덟이나 되어 八閤집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곧은 골 마을의 뒷산 등성이에는 남씨의 묘들과 함께 옛날 비석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비석은 1576년에 세워진 남세건(南世健)의 묘비인데 본관은 의령입니다. 그는 중종대왕 때에 도승지를 오래 역임했고 예조참판, 공조참판, 형조참판, 충청도와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낸 관리였으며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하였지만 가난하게 산 청백리(清白吏)였습니다. 공은 심성이 엄중하고 조용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싫어하여 집안 살림은 단출하였습니다. 독서를 좋아하여 늘도록 게을리하지 않아 공무 외에는 반드시 책을 펴서 앞에 두었지요. 시 또한 청신한 품격을 보였고, 평생을 산업에 뜻을 두지 않고 공무를 받들고 직분을 다하는 데에 뜻을 두어 몹시 춥거나 더운 날에도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비석은 그의 증손자인 남이신(滄溟 南以信)의 신도비(神道碑)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보좌하여 복잡한 군사행정의 업무를 명쾌하게 처리하였고 외교관이 되어 명나라에 두 번이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호조참판을 지냈으나 아깝게도 47세에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그의 시 한편을 올려봅니다.



근시재(近始齋) 달원(達遠)의 운을 삼가 차운하다 (달원 : 조선중기 문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전사, 이조판서에 추증됨)

봄에 헤어져 이미 가을이 지났으니
남쪽의 친구와는 풍류가 막히었네
경호(鏡湖)의 긴긴 그리움에 잔을 깊이 기울이고
강 위 달빛 감내하기 어려워 홀로 누대를 기대노라
천리 먼 전원은 언제나 꿈속에 들어오고
5년의 풍상에 백발이 머리를 덮었구나
고상한 읊조림을 한밤에 등불 앞에 써서
멀리 검은 바위 푸른 빛 서린 곳에 부치노라

세 번째의 비석은 남이신의 아들 남두첨(南斗瞻)의 신도비입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머리가 총명하여 학문을 닦아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10개 고을의 수령을 지냈으며 백성들의 굶주림을 구제하고 선정을 베풀어 그 고장을 떠난 후에는 칭송하는 추모비가 여러 고을에 세워졌습니다. 병자호란 때에는 훈국낭관으로 남한산성의 동문을 지키면서 밤에는 습격해 오는 청나라 군사를 물리쳐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영변에 있을 때 감사 박 엽이 다른 수령들에게는 함부로 대했으나 공에게는 감히 그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며 의주에 있을 때는 명나라 군사 모문룡(毛文龍)이 황국의 우쭐대는 장수였으면서도 공에게는 예우를 갖추었으니 당시 경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하였습니다. 공은 일찍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택하였으며 공이 세상을 떠난 뒤 자손들이 가난으로 생

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그의 청빈함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길 떠나는 서장관(書將官) 박수문을 보내며

사신은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하나니
이 행차 그대 아니면 누가 맡으리
동짓달은 다행히 천추절에 가깝고
서장관은 본디 어사대(御史臺)를 겸하니
드넓은 땅 푸른 물결 위로 배는 멀리 사라지고
하늘 아래 황금 궁궐엔 오색구름 찬란하다
내년 초록 빛날 성남(城南)의 길에
푸른 말 타고 득의만만하게 돌아오는 모습 보리라

네 번째의 비석은 남두첨의 아들 남선(南선)의 신도비입니다. 그는 인조와 효종 때의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여러 관직을 역임했고 밖으로는 여주목사, 황해도관찰사, 한산군수, 충주목사, 안동부사, 경상도관찰사 등을 지냈습니다. 그는 행정에도 뛰어나 다른 고을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큼 훌륭한 치적을 남겼습니다.

48세에 세상을 뜨니 모든 사람이 다 퍼지 못한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자애롭고 충기가 뛰어나 책을 한번 암송하면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을 잘 지어 모두 칭송하여 북인(北人) 8문장이라 하였습니다. 청빈하여 집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자매 우애가 도타웠지요.



그의 자손들 가운데는 뛰어난 수재와 명관들이 계속 배출되었지요. 근래에 유명한 이로 종삼(鐘三)은 가톨릭에 순교한 선각자로 성인(聖人)이 되었으며, 상덕(독립유공자), 덕우(국무총리), 홍우(법학자), 광우(국어학자), 기심(국어학자), 송학(국회의원)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명사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남씨의 시조는 아득한 신라(新羅)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적이기는 하나 당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김충인데 태풍을 만나 신라로 흘러들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해(지금의 죽도)땅으로 표류하여 온 그를 그가 남쪽에서 왔다고 하여 남씨 성을 붙였고 영의 공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설이 있지만, 이러한 기록에 대하여 숙종 때의 영의정 남구만은 천보 년대에 중국 사람이 신라시대로 표류하여 왔다는 기록이 없어서 후대사람에게 고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성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로 북한산비, 함흥의 황초령비 등을 보면 비문에 나타난 수행자 명단을 보아도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직 성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신지만 표시했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도 그러했으며 성은 초기에 왕실이나 귀족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성씨사용은 고려 문종 때부터 사용되었지요.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김(金)이라는 성을 사용해 왔습니다. 성씨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고려에 들어와서 귀족계층이 생겨나면서 부터였습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사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남씨의 후손은 끊임없이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신라 경덕왕(755년)때부터 남씨의 말자취를 더듬어 보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려 충렬왕(1275-1297)때 500년이 흘러서야 진용공 이후에 선영 남씨의 시조인 군보공, 영양 남씨의 시조인 홍보공 고성 남씨의 시조인 국보 공으로 이후부터 계통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은 골은 옛날에 장고개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지요. 예전에 곧은 골 사람들이 분당(盆唐)으로 장을 보러 다닐 때, 이 고개를 넘어 지금의 성남시 분당구 석은뱀이 울동(栗洞)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고개라고 하여 '장고개'라고 불렀는데, 곧은골에서 맹산을 넘어가는 고개이기도 하지요. 한편 성남시 울동·서현동·수내동·분당동·이매동 등지의 주민들이 광주에 있는 경안장(京安場)을 보러 갈 때에도 이 고개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성남시 쪽에서는 장고개를 '곧은골고개'라고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곧은골에서는 멀리 모란 송파까지도 장을 보러 다녔답니다.

곧은 골 남씨와 맹사성의 유택이 있는 맹산은 맹산(孟山)에서 흘러오는 하천과, 이왕현(이앵이고개)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이 마을 어귀에서 합하여 직리천(直里川)으로 흘러 태전동에서 목리천(木里川)과 합쳐져 경안천으로 유입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개성도사공의 산소를 이곳에 모시자 그 산소가 맹 정승의 산소에 가까워 자손들 간에 미미한 마찰이 있자 이에 국왕이 산의 형세를 살펴보고는 맹 정승의 산소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어 안으로는 맹 정승 집안에, 원 밖은 남씨 집안에 하사했다고 합니다.

충신공(忠信公)과 효자공(孝子公) 事跡



예부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과 더불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충과 함께 효를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충신공(忠信公)과 그의 아들 효자공(孝子公)에 대하여 선조실록(宣祖實錄) 임진(壬辰25年 10月)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6개월 후에 일어난 일로 선조대왕이 왜적(倭敵)에게 굴하지 않고 충절과 신의로 목숨을 초개같이 버렸으며 자식 또한 그 아비를 위하여 더욱 지극한 효를 다한 사람들에게 정문을 내리고 치하했다는 예가 있는데 그중 곧은 골에는 부정공의 손자인 이조참판공(吏曹參判公) 종손가(宗孫家)의 충효여각(忠孝餘角)에 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구머니 저 건너편 마을에 왜적이 쳐들어왔대요.”

“이를 어찌면 좋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사방에 왜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야만을 부린다는 소문을 들으며 백성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떨며 삼삼오오 모이면 나랏일이 걱정이 되어 말도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역을 지키는 찰방(察訪) 남정유는 서울 사람으로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나 매우 강직하여 왜적(倭敵)이 도적같이 마을을 침입하였으나 무서움에 떠는 백성을 안심시키고 선운역(鮮雲驛)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적이 간성(杆城)에 들어와서야 깊은 산곡(山谷)에 피하여 있으면서도 마을을 지키며 관복을 바귀 입지 않고 무장상태로 밤낮없이 나라를 걱정하던 중, 7월 1일 신시(申時)무렵에 왜적 30여명이 지막(芝幕) 동구에 진을 치고 불식간에 쳐들어 왔습니다. 그중 10여명이 지막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찰방의 멍살을 붙들고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호령하였지요. 그러나 찰방은 겁내는 기색이 없이 머리를 곧추세우고 응하지 않고 소리 내어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느냐?”

“어서 너희 나라로 냉큼 돌아가거라!”

그러자 흥의를 입은 왜적 하나가 칼을 휘 뽑아 들어 협박하기를

“네가 선운역의 찰방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말을 내어주지 않았다.”

“어서 우리에게 말을 내어 주거라.”

하면서 무엇이라고 지껄였습니다. 그래도 찰방이 왜적을 노려보며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자 왜적은 성난 목소리로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빨리 굴(屈)하지 않고 뭐 하는가?’ 라는 뜻이 다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꾸짖고는 갑자기 찰방의 왼쪽 팔을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찰방의 떨어져 나온 팔이 꿈틀거리며 피가 허공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찰방은 왜적을 노려보며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흔들면서 우뚝 서서 쓰러지지 않으니, 왜적이 놀라 찰방의 오른손 세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찰방은 온힘을 다하여 왜적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지요.

“이놈들 이 무엄하고 방자한 놈들!”

찰방이 이번에도 굴복하지 않으니 다시 머리통을 칼로 쳤습니다. 그래도 찰방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끝까지 굴하지 않고 큰소리로 부르짖기를

“내 빨리 죽고 싶으니 어서 죽여라.”

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자 왜적이 크게 놀라 또다시 알 수 없는 말로 지껄여 대더니 여럿이 활을 찰방의 가슴과 배에 난사(爛死)하니 그만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 아들 철(澈)이 아버지의 피로 얼룩진 몸을 부둥켜안고 땡굴며 “아버님!” 하며 억장이 무너지듯 통곡하다가 혼절하듯 “이놈들아 나도 함께 죽여라.” 하고 울부짖으니 왼팔에 칼을 맞아 난자당하였지요. 그 효성이 더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통(慘痛)하다 하였습니디. 이 일은 나라

에 널리 알려져 백성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허허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때에 찰방의 충성과 또한 어린 자식의 효는 참으로 가특한 일이로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끊지 않았으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당시 도적의 변란이 일어난 후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신하가 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는데 보잘것없는 마관(馬官)으로 적에게 붙들려서도 굴하지 않고 호령하다가 죽으니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이 훌륭하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 철은 아버지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칼날 앞에 대항하여 그 아버지를 양팔을 벌려 안다가 왼팔을 난자당하니 그 효성이 지극하고 지극하다 하였지요. 역사상 흔치 않은 효성과 충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칭송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강원도 감사의 상계(狀啓)에서는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에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신하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보잘것없는 마관(馬官)으로 도적에게 굴하지 않고 호령하다가 죽으니 충성스럽고 훌륭하다 칭송하고 그 아들 철은 아버지를 위하여 도적의 칼 앞에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감싸니 역사상 흔치 않은 충과 효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 후 효자공(孝子公)은 장원서별좌(掌苑署別坐) 벼슬을 제수(除授)받고 임실현감(任實縣監)을 거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전해오는 책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고 난 후 광해군(光海君) 때에 충신 효자 열녀들의 사적을 모두 수합하여 그 한문을 언해하고 사적에 대한 그림을 그려 간행한 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을 삼고자 한 것입니다. 너른 고을 광주는 곧은 골처럼 충신과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지역은 시대를 거치는 동안 비록 작아졌으나 마음이 넓은 너른 고을 광주라는 이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남풍헌 편저, 『곧은 골 남씨의 역사기록』, 의령남씨직동문집간행회, 시간의 물레, 2004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6

광주문화원, 『중정남한지』, 2006

광주문화원, 『광주시사』, 2010

〈집필 : 김영희〉

설월리 연가



광주시 구 시청(송정동)에서 수하리(경화여상앞)를 지나면 퇴촌면 원당리를 거쳐 양평 강하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338번 지방도로다. 삼육재활병원 맞은편에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고 좌측으로 등용문학원 서북쪽에 위치한 칠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이 지월 3리이며 일명 설월리라 부른다. 설월마을에는 예전부터 까치가 많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일까?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봄이나 다람쥐가 도토리 물어 나르는 가을철이면 유난히 많은 까치 떼가 마을로 날아들어 소란을 피운다.

무갑산에 떠오른 달이 흰 눈으로 덮인 칠사산 자락의 작은 마을을 비추면 달밤의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설월(雪月)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설월리는 두견화 필 즈음 봄부터 늦가을까지 유난히 까치가 많은 곳이며 소쩍새가 많이 울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지금은 전원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옛 정취는 느낄 수 없으나 몇 십년 전만해도 설월리로 들어오는 고갯길은 우마차가 드나들 정도의 비포장도로로 사람의 왕래가 뜸하던 곳이었다. 옛날 마을 입구 주막집이 있었던 자리에는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었고 설월마을에서 송정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는 성황당이 있어서 성황당 고개라 불렀다고 전하나 지금은 그 흔적마저도 찾을 길이 묘연하다.

설월 마을에서 서하리로 가는 옛길 옆으로 펼쳐진 산자락은 돌이 많아 서돌이라 하였다고 하며 지금도 돌이 많아서인지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구도로가 되었다.

충청도 충주의 어느 마을에서 무예를 갈고 닦아 무과에라도 응시해 보려고 한양을 향해 출발한 어느 선비가 있었다. 충주를 떠나 여주 이천을 거쳐 사나흘 만에 광주 땅 무갑산 아래 무래비 마을에 이르렀을 무렵 갑작스런 눈보라를 만나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갑자기 웬 눈이 이리 많이 쏟아진단 말인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산중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길을 잘못 들어 삼지 사방 분간을 못 한 채 원당리 재를 넘어가고 있었다. 원당리 재는 무래비(무갑리)에서 원당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리 높거나 험난하지는 않았으나 때때로 산적이나 강도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고개였다.

퇴촌 인근 광동리나 우산리 소미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천

이나 광주 읍내 우시장에서 소를 팔고 돌아가는 고갯길에서 강도를 만나 소판 돈을 빼앗겼다는 소문이 있고부터 그 길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기 다시피 된 고개였다.

“허어! 낭패로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 마을이 나타난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땅거미가 짙어질수록 청년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눈보라가 휘몰아 칠 때마다 어둠속에서 거대한 산짐승이 나타나 덤벼드는 환청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배가 고파서 제대로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으나 고개만 넘어서면 마을이 있으리라는 기대로 부지런히 고갯마루를 막 넘어설 즈음 근처에서 사내들의 웅성거림과 거친 음성이 들렸다.

“거기 서지 못할까.”

대 여섯 명의 험상궂고 긴장한 사내들이 그를 에워쌌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누구라면 어쩔 테냐? 잔말 말고 그 보따리 내 놓으면 두 다리 성하게 보내주마!”

“나는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야 이 미친놈아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말장난질이야!”

“한양으로 가자면 노자돈은 두둑하게 챙겨 왔으렸다.”

밤이라 얼굴은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덩치로 보아 힘 꽤나 씩직한 망나니들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서 무예를 체계적으로 닦아온 갓 스물하나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어렵사리 기회를 찾아 나선 몸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순간 날랜 몸동작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그 자리를 피해 오던 길로 뒤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방은 칠흑처럼 어두워 사위를 가늠키 어려운데다가 장거리 여정에 지친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후들거렸으나 비탈진 고갯길을 내리달렸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고함소리와 팽과리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 그들이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눈 덮인 산골짜기를 내려와 평지다 싶은 곳에 이르렀으나 설상가상으로 그를 가로 막아서는 것은 낭떠러지 아래 언 강이었다. 놈들에게 잡혀 노자 돈 빼앗기고 맞아 죽으나 강물에 뛰어드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으로 낭떠러지로 뛰어 내리려는 순간 뒤통수를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

절벽 아래 강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되살아난 것은 그로부터 여러 시간이 지나서였다. 놈들에게 얻어맞아 터진 뒤통수에서 쏟아진 선혈이 언 강에 덮인 눈을 흥건히 붉게 물들였다. 혼미한 상태에서도 차츰 의식이 회복되면서 그는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내리던 눈이 그치고 서편하늘에는 구름사이로 그믐달이 희미하게 비취고 있었으나 인가의 불빛은 사방천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어 청년은 난감하기만 했다.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청년은 어떻게든 인가를 찾아가 언 몸을 녹이고 더운 물이라도 마셔서 기력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수없이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정처 없이 헤매던 그의 눈에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을 향해 그는 죽을힘을 다해 절룩이며 걸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집 근처 담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사납게 짚어대는 개소리를 듣고 그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둔기에 머리를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여독으로 지칠 대로 지친 때문이었다.

여남은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 입구에는 주막집이 하나 있었다. 오가는 길손들에게 쉬엄쉬엄 막걸리 잔이나 국밥을 팔아 연명하는 가난한 노부부가 늦둥이 딸 하나 키워가며 어렵사리 살아가는 칠사산 아래 동네에 유일한 주막집이었다. 물려줄 재산이라고는 송곳 꽃을 만한 땅패기는커녕 땡전 한 푼 없어도 무남독녀 오뚝하니 있어 낙을 삼고 살아가는 눈망을 선하디 선한 노부부였다. 불빛은 그 집에서 새어나온 불빛이었다. 청년은 그 불빛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 기력을 다해 찾아왔던 것이다.

저녁 무렵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자 나무를 하러 뒷산에 올랐던 나무꾼들 몇이 눈발을 피해 들어와 막걸리 잔 꽤나 기울이다가 밤늦은 시각에 돌아가고 노부부는 뒷설거지를 마치고 늦게야 방에 들어와 이불을 펴는 중이었다. 낮에 종일 잔심부름하느라 지레지친 딸은 건넌방에서 이미 골아 떨어 졌는지 인기척이 없고 봉당머리에서 달포 전에 새끼 낳은 암캐만 줄기차게 짚어대는 것이었다.

“여보 영감, 저 개가 왜 저리 사납게 짚어대는지 문 밖을 한 번 살펴보시구려.”

“글쎄,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이 찾아 올 리도 없을 테고 ……”

궁시렁거리며 밖으로 나간 영감이 사립문 밖을 살펴더니 안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빨리 나와 보시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다급한 음성이었다.

“아니! 이 밤중에 웬 사람 요, 낮익은 사람인가요?”

“죽지는 않은 모양이니 어서 안으로 끌어 들입시다.”

노부부는 건장하여 천근이나 됴직한 축 늘어진 청년을 방안으로 쾡쾡거리며 끌어들었다. 오밤중에 귀신이 곡할 일이었으나 사람의 목숨은 건져놓고 볼일이다 싶어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더운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기고 머리의 상처를 무명수건으로 싸매주고 나서 따뜻한 아랫목에 요를 깔고 눕혔다.

동틀 무렵 청년은 부스스 깨어났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제 정신으로 돌아 오는듯했다.

“이보시오, 젊은이! 이제 정신이 드시오?”

영감이 근심어린 시선으로 청년에게 다가앉으며 물었다. 딸과 어머니도 곁에 앉았다가 이불 밑으로 손을 디밀어 방바닥 온기를 살피며 채근을 했다.

“밤새 꿈꾸 앓던데 이젠 좀 어떠시오? 어디 사는 뉘시온지?”

부스스 일어나 불편한 몸 일으키려는 청년을 영감이 손사래로 다시 누우라며 안심시켰다.

“선화야 어서 아침에 끓여 놓은 미음 한 사발 덮여 오너라! 손님이 시장하시겠다.”

쪼르르 부엌으로 나간 선화가 목판에 미음과 간장종지를 곁들여 들여놓고 제 방으로 돌아갔다. 청년이 미음 한 사발을 말 한마디 없이 다 마시고는 정신이 아득해 지는 지 다시 자리에 누워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기를 거듭했다. 영감이 말을 시켜보아도 청년은 전혀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 어디서 왔으며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물어도 청년은 한숨만 쉴 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못하는 병어린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조차도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태어나면서부터 병어린가, 아니면 머리를 되게 얻어맞아 충격을 받아 실어증에 걸린 것인가 궁금

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여보 영감! 열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으니 걱정이 돼요.”

“그러게 말이요. 머리의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말을 못하니 그냥 돌려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쫓쫓!”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하십시다. 영감!”

그렇게 달포가 지나갔다. 청년은 겨우 일어나 뒷간 출입은 가능했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룩절룩 절었다. 오른 팔도 힘이 없어 수저질이 서툴렀다.

칠사산 꼬트머리 산모퉁이로 양지바른 나지막한 언덕배기와 논두렁에 봄 햇살이 녹아내리자 새파랗게 냉이가 돌아나고 꽃다지가 노란 꽃잎을 하늘거렸다. 산 중턱은 진달래가 봉긋이 처녀들 젓꼭지 같은 꽃망울을 틔우느라 수줍음 많이 타는 아가씨들의 볼처럼 발갱게 달아오르더니 봄비 촉촉이 내린 다음날 활짝 웃었다.

완연한 봄이었다.

저녁나절에 영감은 말도 못하고 절룩거리는 청년을 아들처럼 데리고 경안천 합수물계와 서하리 방향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 등 청년의 건강을 찾아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선화는 인근 들녘에서 냉이를 캐 강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냉이 국을 끓여 총각의 입맛을 찾아주려 애를 썼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던가? 온 가족이 애쓴 보람이 있어 청년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어갔다. 드디어 어눌하지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마워요 정마 고마워요.”

하면서 괴나리봇짐을 풀어 목숨 걸고 지켜낸 노자 돈을 노부부 앞에 몽땅 털어 내놓았다.

“청년! 이러면 안돼요. 어서어서 건강이나 되찾도록 해요, 살던 곳이 어딘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청년은 막무가내로 떼를 썼다. 이 돈을 받지 않으면 이대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돈을 받고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더니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뇌에 손상이 가면서 뇌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말을 잘 못하고 팔다리가 부자유스러워졌다는 것이었다. 뇌에 고인 피가 많지 않아서 자연히 흡수가 되고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피 순환에 좋다는 약을 한 첩 지어 보내왔다. 선화는 지성으로 약을 달여 청년에게 아침저녁으로 봉양하기를 지아버에게 하듯 했으므로 속내를 모르는 마을에서는 귓속말이 오가기도 했다.

“아무래도 주막집 선화 네가 데릴사위를 들인 모양이야. 긴장한 청년이 안방을 차지하고 지내는지가 두어 달은 되었지 아마.”

잘못하다간 딸 하나 시집도 못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선화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사실을 털어 놓기에 바빴다. 한창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 덕이었던지 청년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 되어갔다. 선화의 정성어린 간병에 감복하여 청년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곱상한 얼굴에 마음씨 착한 처녀라는 점은 제쳐 놓고라도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을 고향의 부모님께 아뢴다면 혼인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청년은 했다.

“선화 아가씨!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을 두고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은 비어있는 사기 약사발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나가려는 선화를 돌려세우고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청년의 눈가에 잔잔한 이슬이 맺혀있음을 보면서 선화는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 청년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둘을 짝 지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선화의 부

모님도 하기에 이르렀다.

“여보! 우리선화 저 총각을 배필로 맞으면 좋겠네요.”

선화의 어머니는 노골적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떡이 생긴다더니 그날 밤 눈이 복덩어리를 보내 주었네요.”

들녘에 모내기도 끝나고 보리타작도 끝마무리를 했다. 비탈진 산자락에서 감자도 캐내어 갈무리를 해두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미루나무 가지에서 매미들이 울어대는 어느 날 청년은 노부부 앞에 정중하게 하직인사를 올리고 한양 길에 올랐다.

생명의 은인들이며 장차 아내로 맞을 선화와의 사랑에 묻혀 애써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사나이로서 큰 뜻을 이룬 후에 더 큰 보답을 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굽힐 수가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신세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선화씨,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니 기다려 주시오.”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다. 청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한참 후에도 성황당 맞은편 언덕을 떠나지 못하는 선화를 서하리산을 넘어가려던 저녁노을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이 떠나간 후 주막집은 기르던 소가 팔려나간 외양간처럼 쓸쓸하고 허전했다. 드는 자리는 몰라도 나는 자리는 표가 난다고, 사람 하나 떠난 자리가 그렇게 크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청년이 떠난 이후 선화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평소에도 여름을 타기

는 했지만 달거리가 끊기고 헛구역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예삿일이 아님을 선화 어머니가 먼저 알아차렸다. 동네 여자들의 입방아가 개울 건너 경수마을을 넘나들더니 수하리를 지나 통미 마을로까지 퍼져나갔다.

“처녀가 임신을 하고 총각은 떠나버렸으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네.”

평소에 남 헐뜯는 입심 좋기로 소문난 윗말 아주머니가 선화를 자기 며느리 삼고 싶어 했다가 심술이 나자 그거 보라는 듯이 대 놓고 억지소리를 해댔다.

선화의 배는 만삭이 되어 불러오는데 청년으로부터는 소식이 없어 근심은 산처럼 쌓여갔지만 태중의 아이는 발길질을 해대며 잘 자라고 있었다. 분만 예정일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건만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기 싫다는 투정이었음일까 뱃속의 아이는 나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날 소리 소문 없이 청년이 주막집으로 돌아왔다.

한양에서 두어 차례 무과에 응시했지만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차마 생명의 은인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소식조차 전하지 못했노라고 했다. 산적에게 맞은 후유증이 가끔씩 재발을 하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몸으로 무과에 급제하기란 그리 호락치가 않더라고 했다.

“이 사람아! 과거에 급제를 못했어도 상관없단 말일세. 와줘서 고맙기만 하네,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 줘서.”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진통이 와서 선화는 어렵사

리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는 사산이었고 산모는 태가 나오지 않고 산 후 출혈이 심해서 이튿날 아주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눈은 밤새도록 내려 온 동네가 눈 속에 묻혔다. 청년은 기가 막혀 울 수도 없었다. 한 달 전에만 왔더라도 아기와 산모를 살릴 수 있었을 것만 같은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다. 주막집 사립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달밤에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목 놓아 울었다. 산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산도 울었다.

눈 쌓인 산과들에 보름달이 비취고 강물이 얼어 터지면서 내는 짙짙한 소리와 구슬프게 울어대는 부엉이울음도 사나이의 서러움을 삼키지 못했다. 눈 위에 비취는 달빛이 고운 이 마을에 태어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어나온 아이와 열아홉 앓던 나이에 죽어서 새하얀 눈 속에 파묻혀야 할 선화를 생각하니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칠사산 산허리 양지바른 곳에 새로 생긴 작은 무덤과 큰 무덤 두 개의 봉분위로 눈이 내려 쌓였다. 청년이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자 어디서 날아 왔는지 까치들이 무리지어 무덤주위를 빙빙 돌며 깹깹 거렸다.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였을까? 까치가 우는 아침이면 동네 어귀 모퉁이 길을 하염없이 내다보던 선화의 서러운 혼을 달래 주려고 모여든 까치들인 것만 같았다.

비탄에 잠긴 노부부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하고 자리보전을 했다. 그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 여러 날 지체했다. 쇠약해진 그분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길 떠나는 청년을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눈처럼 하얀 마음을 지닌 선화와 노부부, 눈 위에 달빛이 고운 마을에 뿌리 깊은 서러움만

을 심어놓고 떠나야 하는 청년의 마음과 발걸음은 바위덩이처럼 무거웠다.

잡아낼 수 없는 세월은 흘러 또 한해가 지나고 봄이 왔다.

마을 뒷산에 진달래꽃이 다시 피고 고라니가 먹이 찾아 주막이 있는 동네어귀까지 내려왔지만 한번 죽은 목숨은 돌아올 수 없음이 노부부를 더 아프게 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의 몸이 되어 충청도 고향으로 돌아갔던 청년이 이듬해 봄에 다시 주막집을 찾았다. 노부부는 십년은 더 늙어 보였고 산목숨 어찌지 못해 살아가는 가여운 모습은 차마 눈뜨고 마주 볼 염치조차 없었지만 청년은 노부부의 은공과 선화를 잊을 수가 없어 돌아 온 것이었다. 눈 녹은 선화의 무덤 주위로 진달래가 만발했다. 눈두렁 발두렁에는 냉이 꽃이 하얗게 피어있었다. 선화가 끓여 주던 냉이 국이 생각났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청년의 귓가에 밤새 소쩍새가 울어댔다. 선화의 넋이 소쩍새로 환생하여 자신이 온 것을 알고 찾아와 우는 것만 같았다.

청년은 고향의 부모님께 당부하여 자기 뭇의 발똥기 한 자락을 팔아 노부부의 주막 근처에 논 다섯 마지기를 사서 노부부 앞으로 등기를 내드렸다. 그리고 한해 농사를 지어 곡간에 들이고 나서 청년은 선화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어김없이 그날도 까치가 모여들어 지저뎠다. 진작 오시지 왜 늦었느냐고 선화가 자꾸 꾸짖는 소리로만 들렸다.

청년은 이듬해 봄 한해 농사를 더 지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했다. 눈 내린 마을에서 선화의 무덤을 지키며 노부부와 함께 더 지내고 싶어서였다. 그 해 눈 내리던 날 강도에게 쫓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일이며, 함박눈 내리던 날밤 아이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가버린 가없는 선화, 모두가 눈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지만 잊고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노부부를 위해 데릴사위처럼 모든 뒤처리를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청년은 선화가 겨우 열아홉 해 동안 살았던 방에서 그녀가 덮고 자던 곰팡이 냄새가 깊이 밴 목화 솜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다.

멀리 무덤이 있는 산속에서 소쩍새가 울었다. 선화의 혼이 소쩍새가 되어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 들창문을 여니 눈이 사름사름 내려 산야를 뒤덮고 있었다. 달빛이 새하얀 눈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푸른빛으로 빛나고 멀리 산골짜기 어디선가 또 소쩍새가 소쩍소쩍 계속 깊은 밤을 울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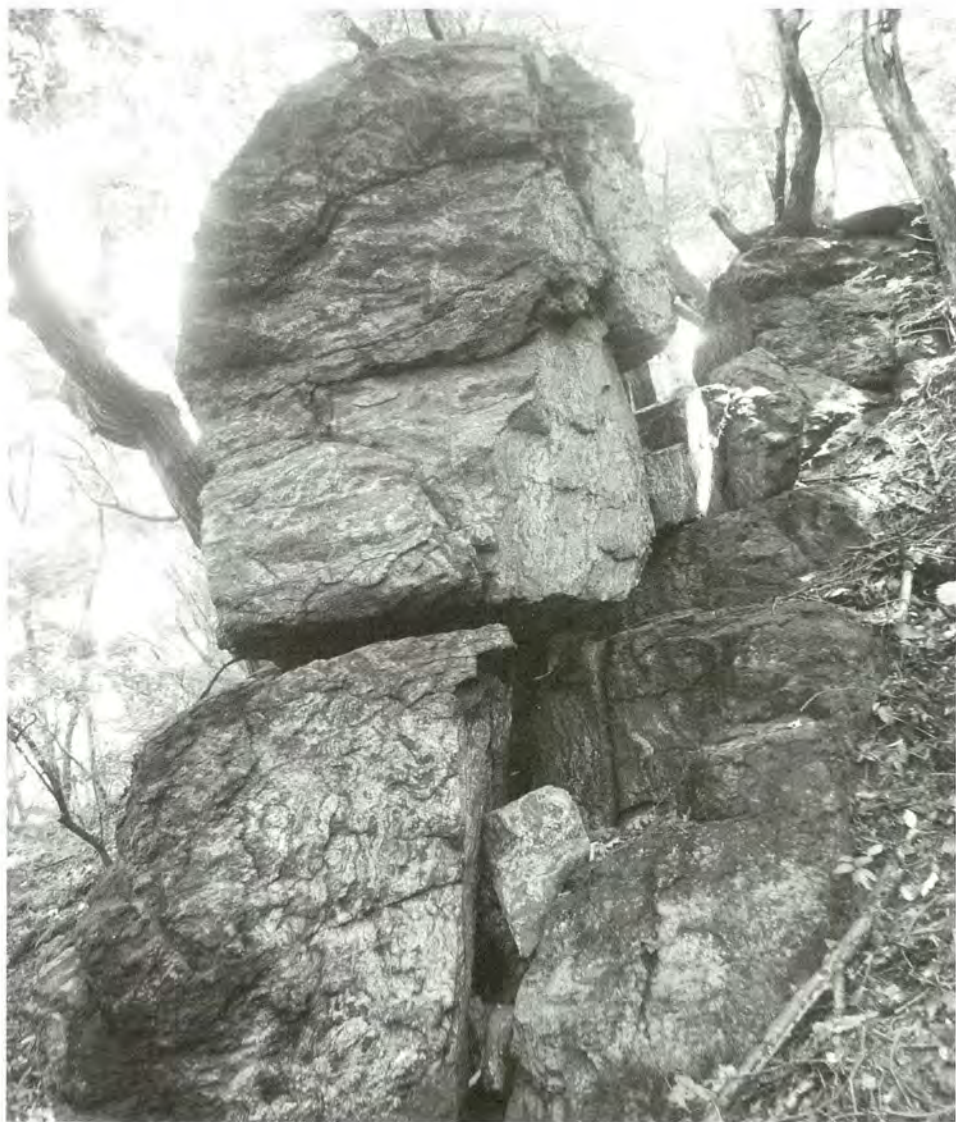
광주의 지명 유래

인터넷자료

설월 마을 주민

〈집필 : 임금재〉

용상골(龍山谷) 관바위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포읍 능평 4리에 사는 정씨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이 마을은 조선조 말 대한제국 때까지는 능곡리(陵谷里)·창평리(倉坪里)·차곡리(車曲里) 등 3개 행정리로 되어 있었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능곡리의 능(陵)과 창평리의 평(坪)을 따서 능평리(陵坪里)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자연부락으로는 위의 3개 마을 외에도 용상골(龍山谷)이 있어 4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용상골은 창평 서북쪽에 있는 곳으로 이 마을의 뒷산 지형이 마치 용이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개발로 인하여 용의 형상을 한 뒷산이 모두 없어졌지만 그 산에는 '관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반듯한 모양으로 위엄있게 자리잡고 있다. 산 속에 있는 이 바위는 사실 모양이 이렇다 할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안내판이나 보호막 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별 주의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그저 평범한 돌에 불과한 이 바위에 '관바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연을 마을주민 정씨에 의해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풀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사오백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 씨의 15대조 할머니 백씨는 본래 경상북도 상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가의 며느리로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중추부사를 지냈던 분으로 벼슬이 높고 덕망이 있는 어른이었다. 그녀는 이런 어른을 모시고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다.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할 삼월에미가 보이질 않았다.

“이보게, 삼월에미! 아직 안 일어났는가?”

큰소리를 낼 수가 없어 나지막한 소리로 삼월에미를 불러보았다.

“예, 마님에 삼월에미 지금 나가예”

허둥지둥 달려오는 삼월에미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갔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가? 생전 늦잠이라고는 자지 않던 자네가 어쩐 일로 이리 정신을 놓고 다니는가?”

그녀는 아침이 늦어 어른들께 면목이 없기도 했지만 삼월에미의 그런 표정을 살다가 처음 보고서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다.

“어데예, 아입니다. 흐흐흐…….”

아무 일 없었던 삼월에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삼월이가예, 영 낫질 안심더”

“아니, 열이 많이 난다고 한 지가 일주일은 지난 듯한데, 아직 낫지 않았다는 말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뒤에 아무 말 없기에 다 나온 줄로만 알았지.”

그녀는 무심했던 자신이 미안해져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둘러 마친 뒤 의원을 불렀다. 병에 걸려 낫지 않는 어린 딸에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삼월에미의 안타까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양반이건 노비이건 다 똑같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편 삼월이를 지켜본 의원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알 수 없는 애매한 표정으로 마님과 삼월에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열도 많이 나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점점 더 나는 것을 보니 뭔가 의심



이 가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니 며칠 차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의원나으리님, 그런 말은 지도 하겠심더. 우리 딸내미 좀 나서 주이소 제발예. 하라는 대로 다 할테이까네예. 혹시 무신 전염병이라도 됩니까? 아이지예? 의원님, 아이라고 해주이소 마. 지발예!”

삼월에미는 의원이 지어준 약을 달여 먹이며 일할 때 말고는 곁에서 꼬박 간호를 해주었다. 낮에 열이 잠시 내려 낮는가싶더니 밤엔 또 펄펄 끓었으며 얼굴에 붉은 반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늘어가기만 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더니 그나마 받아먹던 미음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력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 삼월이를 지켜보던 마님은 가끔 쌀을 갖다주며 삼월이가 얼른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그해 여름에는 가뭄이 심해 시어른들 끼니도 간신히 해결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라며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마님의 그런 정성도 아랑곳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는 3월을 보지도 못한 채 삼월이는 기어코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부모보다 먼저 저승으로 가는 불효를 저지른 삼월이를 어두운 땅 속에 차갑게 묻어버려야 하는 부모의 슬픔은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삼월이를 보낸 삼월에미는 딸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서인지 오히려 담담했다. 문제는 삼월이 애비였다.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보다가 일도 안하고 보내기가 일쑤였다. 늘 씩씩하기만 했던 남편이 저렇게 기운도 없이 멍하게 지내는 걸 보다 못한 삼월에미가 타일렀다.

“보이소, 우리 삼월이 우쨌기나 살리보겠다고 애쓰신 주인마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라마 안돼예. 퍼뜩 정신 차리고 밀린 일 좀 하게 일어나이소. 주인어른 뿔 낮이 없어예.”

아무리 타이르고 욱박질러도 소용없이 삼월 애비는 나아지지 않고 서너 달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생각에서인지 삼월 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이리저리 밀린 일거리를 찾아 부지런을 떨고는 밤도 한 술 떠먹었다.

“인자 기운 차렸지예? 우야겠는교? 떠난 아 자꾸 생각하모 우리만 힘들다 아입니까, 고마 다 잊아빠리소. 지는 아랫말 잔칫집에 일해주려 땡기오 겠심더 갑자기 일 마이해서 씨러지지말고 쫌 쉬시이소.”

삼월에미는 딸 보낸 슬픔을 표현도 못한 채 남편마저 잃어버릴까 노심 초사했는데 이제부터는 안심이라 생각하고 아랫마을로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사연을 알아보았더니 그 맥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 모두들 그 사실을 쉬쉬하며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빠르게 여름이 진행되어 장마도 지나고 폭폭 찌는 한여름이 돌아왔다. 그런데 8월 폭염이 쏟아지는 마을에는 점점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골목에 나오는 이도 점점 줄어들었다. 골목에 아이들 소리도 사라졌다. 이상한 귀신이 돌아다니며 하나 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리다간 마을에 사람 구경하기 힘들 거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음산한 기운은 정 씨 집 마당까지 찾아왔으니 한 곳도 비껴가지 않은 셈이었다. 며느리인 백씨와 남편이 아버지께 문안인사를 드리러 갔다.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계시던 아버지가 웬일인지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들은 불안해하며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잠을

자듯이 가만히 누워있었다.

“아버님!”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갑자기 이승을 떠난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했다. 의원을 불렀으나 이미 마을에 전염병이 시작되었으니 조심하라고만 할 뿐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염병이 이 집에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나서야 후회를 하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안은 다행히 한동안 평온을 되찾았다.

이후 마을에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전염병은 멀리 사라졌다고 모두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백씨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온 남편마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끝났거니 했던 전염병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늘같은 남편마저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백씨는 역장이 무너졌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하는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어린 자식들과 어찌 지내야 할 지 까 막혔다. 게다가 마을에는 전염병이 점점 퍼지고 있어 자식들이 큰일이었다. 주인마님으로 떠받들던 하인들도 전염병에 죽거나 전염병이 돌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몰래 도망가고 없었다. 옆에 남은 사람은 딸과 남편을 병으로 잃은 삼월에미와 영문도 모르고 톨망톨망 지켜보는 어린 자식들뿐이었다.

며느리는 중대 결심을 하고 삼월에미를 불렀다.

“이제 자네를 거들 형편이 되지 못하니 전염병을 피해 서둘러 다른 좋은

곳으로 떠나도록 하게.”

둘은 친정에서 같이 지내며 시집을 때도 함께와 평생 곁에서 살아왔다. 신분이 달라 모든 것이 차이가 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삼월에미를 제 밑에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려는 지금도 사실은 삼월에미를 데려가고 싶지만 자기 때문에 더 고생할 것이 염려되어 혼자 떠나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삼월에미 또한 미천한 신분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정성껏 돌보아준 마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딱한 처지에 혼자 잘살자고 나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님예, 지는 마님과 떨어져서는 마음 편히 못살아예. 지가 마님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카모 거두어 주이소 예?”

삼월에미의 본심을 알게 된 백씨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짐을 꾸렸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꾸나!”

고스란히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 둘은 짐을 꾸리다 말고 설움에 겨워 부둥켜안고 목놓아 울었다.

설상가상 다음날 삼월에미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미 전염병이 퍼져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루 전에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뜨다니 귀신이 곡을 할 일이었다.

“자네마저 세상을 떠나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이사람아! 부디 좋은 데로 가게나.”

결국 세상에 혼자 남은 며느리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했다. 전염병이 돌아 병에 걸린 사람들의 옷가지며 물건들은 다 태워야하기 때문에 챙겨야할 짐이라고는 없었지만 올망졸망한 자식들을 데리고 일단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래도 혈육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겠지 싶어 군포에 사는 시동생에게 가기로 마음먹었다. 거기까지 가려면 몇 달은 족히 걸릴텐데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얼마간 먹을 양식을 챙겨 무조건 집을 나섰다.

그 시대에 아녀자가 밖을 다니는 일은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혼자도 아니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죽음과 그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어린 자식들은 배고프고 추울 때마다 보채기도 하였지만 어려운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는 듯 곧잘 따라왔다. 어느 땐 깊은 산속에서 해매기도 하고 지쳐서 길가에 쓰러져 자기도 하였다. 오직 군포에 있는 시동생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희망을 안고 모든 것을 참고 길을 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에는 집도 있고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물어보니 그곳은 '광주'라고 했다. 드디어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다. 체면불구하고 어느 초가에 들어갔다. 집주인은 마침 빈 방이 있으니 하룻밤 묵어도 좋다고 했다. 게다가 보리죽까지 끓여 주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니 세상에 그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할지 몰랐다. 아이들 또한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느냐며 뿔 듯이 기뻐했다. 창가에 햇살이 환하게 들었지만 날씨는 몹시 추웠다. 문틈 사이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바람이 새어들고 있었다. 백씨는 저녁상을 물리자 궁금증 많은 주인 여자가 뭘 좀 물어볼 틈도 없이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때, 백씨는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번쩍떴다.

“아가야, 이리 오너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손짓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머느리를 부르고 있었다. 힘들어 지친 머느리가 자리에 주저앉자 일어나 다시

오라고 손짓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가 어느새 산신령으로 변해 있었다. 안개 속에 보일 듯 말 듯 허영계 긴 머리와 수염을 휘날리며 머느리를 부르고 있었다. 넓은 옷소매가 바람에 펄럭였다.

“도대체 어디까지 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험한 곳으로 끌고 오는 건가요?”

가고 있는 산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허겁지겁 따라 가다보니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산신령이 나지막히 말하였다.

“이 바위는 벼슬 관자를 써서 ‘官바위’라 부르고 있다. 이 관바위가 너를 늘 지켜주고 집안을 일으켜줄 터이니 그저 성심을 다해 살아가거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산신령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

“신령님! 신령님!”

손을 허우적거리다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이었다. 밖으로 나와 뒷산을 바라보니 꿈에서 본 산,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산이었다. 머느리는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을 주인에게 맡기고 산으로 올라가보았다. 한참 오르다보니 어제 꿈에 걸어가던 바로 그곳이었다. 추적추적 가는 빗방울이 떨어졌다. 젖은 옷자락을 끌며 산을 오르는데 이런! 꿈에 보았던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바위는 어제 꿈에 보았던 그 바위?”

어쩔 꿈에 본 바위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그 바위가 또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놀라워 어쩔 줄을 몰랐다.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지자 산과 마을이 환하게 보였다. 산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아주 작고 아담했다.

“음, 이건 필시 이곳에 살라고 하는 운명임에 틀림없어.”

백씨는 군포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이곳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초가를 짓고 밭도 가꾸어 억척스럽게 살아갔다. 그러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책 읽는 일 또한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는 어김없이 집 뒷산에 올라가 바위 앞에서 치성을 드렸다. 이때부터 바위가 네모반듯하게 관을 쓴 모양이라서 ‘冠바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신령이 얘기한 대로 벼슬길을 내려주는 영험함이 있다하여 ‘官바위’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에 물건을 내다팔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산길을 걸어 오고 있는데 눈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마리가 떡하니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굶주린 호랑이는 좋은 먹잇감을 찾은 듯 며느리를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얼른 관바위 뒤에 몸을 피했다. 어슬렁거리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노려보던 호랑이가 관바위를 보자 걸음을 툭 멈추었다. 그리고는 관바위 뒤에 숨은 백씨를 한 번 노려보고 다시 바위를 보더니 포기한 듯 꼬리를 내리고 그냥 산을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죽었구나하고 침만 푼딱푼딱 삼키던 백씨는 호랑이가 바위를 보고는 그냥 달아나버리자 또 한 번 관바위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생각하며 영험한 바위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 후 부터 관바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 백씨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새벽 일찍 일어나 관바위에 기도드리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차츰 살림도 나아지고 자식들과 그 후손들이 출세를 하게 되면서 마을 일대에 정씨가 집성을 이루게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런 조상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후손들이 그 관바위를 특별히 모시게 되었다. 일제시대 까지만 해도 매년 관바위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제

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다른 성씨들이 이주해오고 전원주택 등이 많이 생기면서 차츰 그 산이 지닌 용의 형상이 사라지듯 관바위의 영험함도 점차 옛날이야기 속으로만 묻히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저 네모난 바위에 불과한 평범한 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홀홀단신 광주라는 낯선 곳을 찾아온 한 여인에게는 척박한 땅을 개간하며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찾아가 의지하고 위로를 받았던 유일한 희망이었으며 한 집안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한 견고한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6

마을주민제보

〈집필 : 오경영〉

경안교(돌다리) 이야기



다리는 물을 건너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다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예로부터 광주에도 크고 작은 다리가 여럿 있는데 광주에서 곤지암으로 넘어가는 길에 제1경안교가 있다. 그 다리가 생기기 이전에 경안교라 부르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놓을 때에 생긴 일이 신기한 이야기로 전해 오고 있다.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고려시대로 돌아간다. 고려 후기에는 무신정권

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권이 극도로 혼란하였다. 백성은 피폐한 가운데 원의 침입으로 무신세력의 전세가 악화되자 1270년 무신 배중손 등이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 삼별초를 이끌어 난을 일으키는데, 이에 김방경은 원종의 명을 받들어 진압하기에 이른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대마도 정벌 당시에 경안교를 만들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

다리 공사의 책임을 맡은 유 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는 물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다. 돌로 만드는 다리는 튼튼한 만큼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게도 많이 나간다. 기둥 역시 돌로 세워야 하는지라 기둥을 적게 쓰면서도 돌판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돌을 구하는 것에서 알맞은 크기로 다듬고 운반하고 고정시키는 일 등은 일꾼들 서로가 협력해야만 정해진 기일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다 하나같이 집안 사정들이 좋지 않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당시 사회는 원 간섭기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원나라에 내놓아야 하는 공물과 일본 정벌에 내놓아야 할 군비 부담이 컸고 세금을 내지 않는 농장이 증가하였다. 중앙관리는 이를 채우기 위해 수탈을 심하게 했고 지방은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런 다리공사에는 부역을 지게 되는데 세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빈약한 사람들만 역으로 동원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그러다보니 인근 마을 남자들이 모두 부역으로 동원되었다. 그런데도 작업량에 비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유 씨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리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 일을 두려워



하는 마음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공사는 뭘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다행히 일은 잘 진행되어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과 맞닿는 기둥 아래의 받침돌은 물이 흐르는 방향에 맞춰 놓아야 해요.”

대충 놓고 말려는 사람에게 꼼꼼하게 일러둔다.

“물의 압력을 덜 받게 하려면 받침돌을 마름모 모양으로 돌려 세우거나, 받침돌 앞에 삼각형이나 반원 모양으로 다듬은 ‘물가름돌’을 놓아야 합니다.”

책임자는 차근차근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알겠어요. 영차 영차”

“어이! 이 사람이 잘 좀 해봐. 돌이 옆으로 빠지고 있잖아?”

“아니,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자네가 힘이 세다고 너무 힘자랑 하는 것 아닌가?”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쉬었다 하는 게 어때? 서로에게 괜한 트집 잡지 말고.”

“그러세. 공연히 집에서 굶고 있을 처자식 생각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일을 게을리 하게 되지 뭐가.”

한창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며 실랑이하던 일꾼을 비롯해 모두는 휴식을 취하려고 이리저리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땀을 닦으며 물 한 모금 마시고 기둥에 기대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하였다.

“아이고 힘들다. 어제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 죽겠구만!”

하더니 그 앞에 있던 사람은 아예 큰대자로 드러누워 버렸다.

지쳐버린 일꾼들이 하나 둘 휴식을 취하자 유 씨는 그동안 너무 강행군 하며 일꾼들을 혹사시켰다는 생각에 그날 일은 그것으로 마쳤다.

그 이후 닳새를 꼬박 일을 하고 점심때가 되니 드디어 완공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모두들 자랑스런 모습으로 의기양양하여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늘 밑을 찾아 자리를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구름 한 점 없이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얼마 안 돼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쉬고 있던 일꾼들이 한 번에 쓸려나갔다. 일꾼들이 물속으로 사라진 것은 삼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남은 일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피신하였다. 비바람이 뒤쪽에서 몰려 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뒤이어 일어난 일에 모두 아연실색하였다. 그 튼튼하던 다리가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이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런 때에 쓰는 말일테다. 일꾼들은 행여 비바람에 떠내려갈까 조마조마했는데 그 와중에 책임자 유 씨는 그동안 쌓아놓은 다리가 무너질까봐 다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힘껏 버티고 있었다. 그러한 안간힘이 무색할 정도로 비바람은 폭풍우로 변하여 삼시간에 다리를 부러뜨려놓았다. 다리를 붙들고 있던 유 씨마저 휩쓸려버렸다.

“하늘도 무심하지, 쫓쫓쫓”

폭풍우에 떠밀린 책임자와 일꾼들은 정신을 잃은 채 다리 아래 풀숲으로 내동댕이치며 사방으로 널브러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관아 사람들이 달려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데리고 갔으나 물속에 쓸려간 두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물살이 빨라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낼 수가 없었다.

“도대체 다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으면 그깟 비바람에 다리가 갈라지겠나? 당장 파면이네.”

향리는 다짜고짜 쓰러져 겨우 목숨만 건진 책임자를 불러 강력한 경고를 했다. 유 씨는 몸이 성하지 않아 말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 인정하고 자기변명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해버렸다.

“아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대답이 없는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건가?”

향리는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 책임자를 구석으로 몰고 마구 쓰아붙였다.

유 씨는 향리가 역을 징발할 때 뇌물을 받고 세력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면해주고 가난한 사람들만 역을 부담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때가 아닌 듯해서 참았다. 지금 상황에 대해선 무조건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상대를 물고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어느 스님의 목탁 소리에 모두들 고개를 돌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공사장에 와서 정신없게 시끄러운 소리야? 저리 가시오.”

향리는 귀찮은 짐짝 취급을 하며 스님을 밀어버리자 스님은 힘없이 쓰러져버렸다.

“스님,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 이해해주십시오.”

쓰러진 스님을 일으켜준 사람은 책임자 유 씨였다. 그리고는 노임으로 받은 짚을 한바가지를 담아 스님 바랑에 담아주었다.

“고맙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허리를 구십도로 꺾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천천히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가더니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제 앞가림이나 잘 할 일이지, 이제 일자리도 없어질 판에 식구들 줄 양 식까지 오지랖 넓게 시주를 해?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지 이양반아.”

향리는 또 기회다 싶은지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유 씨는 다리 공사에 관한한 누구보다 자신 있었는데 이렇게 완공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니 너무나 아쉽고 억울하였다. 그래서 책임자의 자리는 물러날 테니 일반 일꾼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올 책임자가 자네에게 일 시키기가 불편하지 않겠나?”

유 씨는 향리가 거북해하자 일의 진행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묵묵히 일꾼으로서만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하고서야 비로소 공사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렇게 폭풍우 몰아치던 날이 거짓말처럼 지나고 며칠 뒤 하늘은 파랗게 다시 맑아져 나들이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날이 계속 이어졌다.

“자 자 서두르시오. 우리 군사가 지나갈 때가 되었으니 어서 다리를 완성해야하오.”

새로 부임한 책임자는 유 씨와 달리 다리 놓는 일을 매우 재촉하였다. 단지 자신의 공적 쌓는 데에만 급급했던 그는 일꾼들의 적절한 보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 착취의 강도만 높여갔다. 유 씨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꾼들의 생계를 도와줘 가며 오로지 다리공사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렇게 서두른 탓에 전 책임자가 들인 시간의 절반쯤 지나자 다리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되니 오늘은 잠시 눈 좀 붙이고 내일 일찍

일어나 마무리들 하게나.”

책임자가 모처럼 휴식을 권해 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강가의 저녁에 강물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모두 잠에 꿀아 떨어져 있는 시간, 유독 혼자만 그 강물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전 책임자 유 씨였다. 그런데 갑자기 잔잔하던 강물에서 물살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다. 술에 취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희한하게도 물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잠하였다.

‘음, 그럼 그렇지.’

유 씨는 고개를 돌리고 잠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또다시 물속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유 씨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동료들 깨우기 위해 숙소에 가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또도도도도”

목탁 소리였다.

“아니 이 어두운 밤, 스님이 이곳에 어떤 일이십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으흠~ 슬슬 준비를 하고 있구만!”

“네? 누가 무슨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기 저 물 속에 용이 살고 있어. 독을 잔뜩 품은 용이 독을 제대로 내뿜어야 하늘로 승천하는데 어딘가에서 자꾸만 걸려.”

하고 중얼거리더니 스님은 또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르던 물줄기가 어느 사이 고요해졌고 평소처럼 아름다운 별빛만 품고 있었다. 유 씨는 밤에 본 무시무시한 물줄기며 알아들

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진 스님에 대한 기억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렇게 비몽사몽간 하룻밤을 보내고 간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명한 아침이 밝았다.

“이제 오늘 하루만 하면 드디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모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예, 예, 그럼시다.”

일꾼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마지막 돌다리 놓는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새 책임자는 마침 공사의 마지막 현장을 보러온 향리에게 드디어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으리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강물 저편에서 물기둥이 솟아오르더니 다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큰 바위들이 물위로 솟아오르고, 그 사이에서는 여울들이 입을 크게 벌리며 심하게 회오리치고 있었다. 물살이 더욱 빨라지고 파도와 여울이 뒤얽혀 물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했다.

‘도대체 무슨 물기둥이 저렇게 세단 말인가? 얼마나 튼튼하게 놓은 다리인데, 또 부러뜨리려고?’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던 유 씨는 용이 돌다리 어디에서 자꾸 걸린다는 말을 이른 아침 새 책임자에게 전했다지만 무시당했던 게 문득 떠올랐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더 생각할 겨를 없이 돌다리로 가보았다. 별 이상이 없어보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다리 정 중앙 아래에 알 수 없는 소용돌이가 계속 치고 있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마치 그 소용돌이를 제거하려는 듯 거대한 물기둥은 살아있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출렁거리며 다리의 중앙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 때 멀찌감치에서 지켜보던 스님이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누군가 말리려고 스님을 붙잡았지만 바람만 제 어깨에 걸쳐졌다.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스님과 유 씨를 걱정하며 애를 태웠다.

스님이 가지고 있던 목탁을 하늘에 휘-익 던지자 손잡이가 있는 긴 지팡이로 변하였다. 스님은 지팡이로 솟아오르는 물기둥을 한 대 후려쳤다. 그러자 물기둥은 물속으로 고꾸라지는가 싶더니 눈이 부리부리하고 온 몸에 주름이 접힌 용으로 변하였다. 그 용은 흔히 알고 있는 용이 아니라 검은 독을 뿜어내는 독룡이었다. 독이 바짝 오른 용이 아가리를 벌리고 스님을 향해 돌진하다가 이곳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던 향리와 새 책임자를 단숨에 휘감아 물속에 내동댕이쳤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리 중앙에서 물살을 가로막던 소용돌이가 멈추었다. 그 틈을 타 스님은 어느새 하늘로 한번 훌쩍 뛰어넘었다. 용이 다시 하늘로 날아 스님을 낚아채려 하였고 그러기를 두 세 차례, 용의 눈에서 번쩍번쩍 섬광이 비치고 하늘에서는 우르르 광광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다시 용이 무서운 기세로 몸을 꼳꼳이 세우고 다리의 중앙, 소용돌이쳤던 곳으로 달려들자 스님은 지팡이 손잡이로 용의 목을 움아맨 뒤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공중돌기를 시키고는 용의 목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러자 붉은 피가 강물에 뿜어졌고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물살이 잠잠해졌다.

스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물속을 걸어 나왔고 다리 중앙에서 소용돌이를 발견했던 유 씨도 무사히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스님 덕분에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독룡은 무사히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되었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다리 중앙에서 계속 소용돌이로 떠돌고 있는데 차마 두고 갈 수 없어서 저 난리를 피웠던 것이네. 예전에 향리와 새 책임자가 저지른 비리가 들통나자 순진무구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일이

있었지. 그 원한을 용이 풀어주니 소용돌이도 멈추게 되었던 거네. 내가 한 일이란 소용돌이치는 원혼이 풀어진 줄도 모르고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 것뿐이라네.”

그 일이 있는 뒤 돌다리는 잘 마무리되어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려장군 김방경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 대마도 정벌에 임할 수 있었고, 독룡과 스님에 얽힌 이야기를 안고 오늘도 유유히 경안교 아래 경안천은 흐르고 있다.

스님이 돌아가고 다리가 드디어 완공되었을 때 하도 기이한 일이라서 그 공적을 비석에 새겨 다리 위에 세웠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훼손되어 없어졌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렵지만 이런 전설을 가진 경안교는 조선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로였다고 한다. 이괄이 난을 일으켜 도망가면서 50~60여 명이 경안교에서 쉬었다고 하고 정조 임금도 이 다리를 건너 여주의 효종 대왕릉을 참배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광주문화원, 『광주의 지명유래』, 2006

경안동 주민(익명)

〈집필 : 오경영〉

노비 천재시인 정초부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 지금의 남종면 수청리 마을인 저 월계 나루 인근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천재 시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비시인 ‘정초부’다. 그는 정봉(鄭鳳)이라고도 하고 ‘정이재’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워낙 천민인지라 그저 나무꾼이라는 뜻의 ‘초부’로 불렸었다. 또 수청탄에 살았다 해서 ‘수청초부’로도 불렸었다. 그의 시적 재능은 가히 천재적이어서 당대를 주름잡던 정약용·박제가·이학규 등과 같은 문필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으니 반상 구별이 뚜렷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비가

감히 당대를 주름잡던 문필가의 시집에 작품을 실을 만큼 실력이 뛰어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비를 노비로만 보지 않고 사람의 재능을 높이 살 줄 알아 그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 한 선각자의 따뜻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통정대부 품계를 받았던 정초부의 주인 여선장(呂善長)이다.

그러나 정초부가 천재시인이라고는 해도 노비는 노비인지라 한평생을 비루하게 살다 갔으니 노비로는 태어났으나 그래도 탁월한 재능과 훌륭한 주인을 가진 행운의 사내라 해야 할지, 노비의 신분으로 세상의 벽 앞에 날개를 접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었던 불운의 사내라고 해야 할지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인간은 자고로 누구나 생명이 존엄하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거늘 참으로 몹쓸 세상도 있어서 사람 아래 사람을 두어 제 소유로 여기고 소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노비의 신분을 가진 정초부가 바로 그런 시대의 인물이 아닌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그의 재능을 익히 알아보고 어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킨 양반을 주인으로 두었다는 사실이다. 노비를 자식과 함께 공부시킨 그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여성대감의 4대손으로 지제교(知製敎)를 지낸 여선장(呂善長)이라는 인물이다. 시를 사랑하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와 인품을 지닌 함양 여씨가의 양반으로 훗날 20살이 위인 노비와 친우관계로 지냈던 여춘영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일반 양반들조차도 한시는 매우 어려워 적어도 한 편의 한시를 짓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15개 내외의 규칙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시를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노비



의 신분으로 그렇게 훌륭한 한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순전히 재능을 알아본 주인 여선장(呂善長)의 교육 덕분이었다.

여 대감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워낙 정승을 지낼 만큼 대대로 큰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이라 노비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정초부도 여씨 문가의 노비였다.

정 초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지적 호기심이 많고 두뇌가 총명해 주인이 읽는 글소리를 귀동냥으로 듣고 글을 외곤 했었다. 어린 노비는 보통 하루에 나무 한 짐 하는 것으로 제 소임을 다했는데 정 초부는 그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글을 익히는데 마음을 쏟았다.

그 날도 정초부가 소죽술에 불을 지피느라 가랑잎을 태우고 있었다. 가랑잎에는 온통 거뭇거뭇하니 얼룩이 나 있었다. 주인은 무심코 지나치다 그 얼룩이 여늬 얼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을 때는구나. 그런데 그 가랑잎이 왜 그리 찢기고 얼룩이 나 있는 게냐?” 여 대감은 하도 기이해 가랑잎을 주워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게 무엇이냐? 아니, 이걸 글자 아니냐?”

어린 초부는 죄를 지은 듯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주인은 가랑잎에 쓰인 글자들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하도 기이해 다그쳐물었다.

“어찌 된 게냐? 이글을 누가 썼단 말이나?”

노비가 글을 안다는 것이 죄악시 되던 시절이라 뭇뭇이 제가 썼노라고 밝히기가 어려웠다.

“송구하옵니다. 제가…….”

“뭇이라고? 네가 이 글을? 네가 어떻게 글을 알며, 또 글을 안다한들 이

런 내용을 어찌 안단 말이냐?”

“대감마님이 글을 읽으실 때 오며가며 익혔습니다.”

“그래? 오며가며 익혔단 말이지?”

여 대감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어 한참을 들여다 보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참, 그놈 맹랑한 데가 있구나.”

여 대감은 어린 초부를 눈여겨보다 어느 날 지필묵을 선물로 주고 마음대로 글을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여 대감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대를 끊는 불효라서 지금의 퇴촌면 광동리 광백이 마을에서 예닐곱 살 무렵의 ‘춘영’을 양자로 들이게 되었다. 어린 춘영은 글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사랑채에 나가 글을 읽곤 했다.

여 대감은 노비가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쪼개거나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늘 흥얼거리며 글을 외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초부를 불러 세워 물었다.

“너는 뭘 그리 노상 흥얼거리고 다니는 게냐”

“예? 예, 마님, 마님이 글을 읽으실 때 귀에 들어와서 외게 되었습니다.”

“그래? 낮에 나무하느라 고단했을 터인데 그 소리가 들어오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느냐?”

“예, 대감은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여선장(呂善長)은 어릴 때부터 노비 정초부의 사람 됨됨이가 성실한데다 지식에 관한 관심이 남다르고, 그 흥얼거림도 예사롭지 않아 눈 여겨

보던 차였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정초부도 그들 곁에서 들은 내용을 몰래 익혀 그럭저럭하는 사이에 제법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추게 되었다.

“너 내일부터 춘영이와 함께 글을 익히도록 하거라.”

“예?……. 도련님과 같이 글공부를 하라구요?…….”

노비 ‘정초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주인의 명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리만 조아리고 있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제가 그래도 되나? 하는 생각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정초부는 다음날부터 더욱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는 어린 춘영과 함께 책상머리에 앉았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고, 둘을 알려주면 셋을 아는 노비의 재능에 여선장(呂善長)도 매우 흐뭇해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 춘영도 나이가 스무 살이나 위인 노비임에도 서로 의지하며 정초부를 글벗으로 여기게 되었다.

주변에선 그런 여선장(呂善長)의 행동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마땅찮게 생각하기도 했다.

“자넨 일개 노비에게 무슨 글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나? 부지런히 일만 하면 되지. 노비 주제에 과거 시험을 볼 건가? 아니면 벼슬이라도 할 건가? 쓸데없는 일 하네 그려”

“워낙 재주가 뛰어나니 그냥 있기 아까워서 안 그러나.”

“그러다 나중에 일도 하지 않고 문자 씩네 하고 버릇없이 굴면 어찌려구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닐세. 두고 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양반 뺨 칠걸세.”

“이런, 쫓쫓. 그래 노비가 양반을 능가하는 게 자넨 보기 좋은가?”

“아무려면 어떤가. 재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게지. 저 아이와 내 재미 좀 보려고 그러네.”

양반 여 씨는 사람 좋기로 근방에 소문이 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르게 자유롭고 활달한 데가 있었다.

“그래 글공부는 잘하고 있는 게냐?”

“네, 마님 아주 재미있습디다요.”

“그래 부지런히 공부해보거라. 세상이 보일 게다.”

정초부는 글을 통해 세상을 읽게 되었고, 따라서 이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어린 춘영이 시를 짓다 막히기라도 하면 자상하게 풀어주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정초부를 춘영도 어느새 동문수학하는 글 친구로 인정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야. 언뜻 떠오르는 글자가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도련님, 여기는 이런 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

둘은 서로 의지하며 글공부에 재미를 더해갔다.

세월은 흘러 춘영도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정초부의 지식도 탁월할 정도로 깊어졌다. 춘영은 정초부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공부하는 양반자제들의 시제를 풀어주어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향간에는 주인택 자제 대신 과거시험을 대신 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자네네 노비가 시를 그리 잘 짓는다며?”

“나보다 낫네. 여기 이 시 좀 보게나.”

춘영은 초부가 지은 시를 벼들에게 보여주며 은근히 초부의 재능을 자



랑삼아 이야기 하곤 했다. 진실로 노비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그의 재능을 인정해주며 친구 겸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다. 정초부의 소문은 금세 양반사회로 퍼져나갔다.

“지난번에 자네네 집 노비 글이 참 좋던데, 다음 모임에는 자네 노비와 함께 시를 지어보세.”

“그러세, 그 탁월한 시를 함께 감상해 보세.”

그의 소문은 어느새 한양까지 흘러들어가 글 꽤나 쓰는 양반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는 어느 사이 유명한 인물로 통하고 있었다.

당시 양반들은 누각에 둘러앉아 현장에서 시제를 내걸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곤 했는데, 워낙 정초부의 시 짓는 능력이 탁월해 그를 불러 잘 풀리지 않는 글귀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그의 시도 감상하며 시회를 즐겼다.

“오늘의 시제로 어디 자네가 한번 지어 보게.”

“예, 서방님. 그리해보죠.”

정초부는 많은 사대부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되었다. 지금의 서울 동숭동에 있는 이유수(李惟秀)의 정원에서 윤급과 남유용, 유언호 등이 포함된 13명의 정승·판서들이 시회를 열었을 때도 초빙되어 시를 주고받았다. 이 성대한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어떤 화가가 <동원아집도>(東園雅集圖)란 그림을 그렸는데 패랭이를 쓰고 도롱이를 입고 구부정하게 대청 아래 서서 시를 바치는 정초부를 묘사하기도 했다. 정계의 실력자인 김종수(金鍾秀)는 그와 주고받은 시집을 백우초창시권(伯愚樵唱詩卷)으로 만들기도 했다. 노비였던 자가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초부가 아무리 시를 잘 지어도, 또 주인이 아무리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도 노비의 신분은 어찌지 못했다. 뜰아래서 시를 지어 양반에게 바쳤으니 말이다.

“참, 대단하구나. 하긴 웬만해서 우리들과 대적할 수 있겠나?”

양반들은 그의 재능에 혀를 내둘렀다.

“나보다도 낫다니까 그러네. 허허.”

춘영은 한양에 갈 때면 으레 초부를 데리고 갔고, 혼자 갈 때면 그의 시를 들고 나가곤 했다. 나중에는 노론의 모임에도 초대될 만큼 정초부의 시는 평측이나 운을 맞추는데 있어서 기량이 뛰어났다.

“자네가 양반가에 태어났다면 대관급제 했을 터인데 안타깝군.”

여춘영은 실로 그의 재능을 아끼며 노비의 신분을 안타까워했다.

여 참판이 나이 들어 여춘영이 집안을 다스리게 되었다.

“아버님도 자네를 아꼈지만 나 또한 자네를 친구처럼 아끼네. 그래서 자네의 노비문서를 태우려 하네. 자네도 이제 불혹을 넘겼으니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보게나. 그래도 앞으로 나와 함께 시 짓는 일은 계속 해야 하네.”

그의 나이 마흔 셋이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천민인 저를 이리 대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나마 시를 짓는 것도 다 서방님 덕분이지요.”

“그리 말 할게 없네. 자네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 내가 오히려 자네한테 배우는 게 많지. 자네가 기거할 집은 내 건너에 마련했으니 거기서 기거하며 눈치 보지 말고 살아보게.”

정초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천민으로서 과분한 영광을 누린다는 생각과, 타고날 때부터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간의 절망이 뒤엎혀 오만 생각이 뇌리를 스쳐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마흔

셋에 면천되어 양근 갈대울(당시 월계로 불림)에 거주했다.

노비 '정초부'는 자유의 몸이 되어 평범한 중인의 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노비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땀나무나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는 이름이 알려진 후에도 명성을 이용해 세력 가진 자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월계의 나무꾼이라는 이름에 만족했다. 지은 시에는 이름도 쓰지 않고, 그저 초부(樵夫)라고만 썼다. 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초부라고 했다. 그는 천상 타고난 시인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낮췄다고 해서 식자들이 그를 노비나 나무꾼이니 하며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도와 강원도로 가는 주요한 길목이었던 월계를 지키는 특별한 명사가 되었다.

“아참, 자네 내일모레 동원아집(東園雅集)이 열리는데 나와 함께 가세. 다들 자네를 데려오라고 하는군”

“그러죠.”

주변 고을의 수령들도 시회가 있으면 그를 불러서 함께 시를 지었다. 또 당시는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랄 수 있는 '정조' 시절로 양반은 물론 천민들까지도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시기였다. 중인들조차도 옥류동에 모여 한시를 짓곤 했는데 정초부는 단연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기량이 뛰어났다.

“부러워 죽겠어. 노비 신세에서 풀려났으니 오죽이나 좋아.”

“그러게 참판 댁에서 양식도 거들어주시지 않겠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뭐. 양반님네들 하구만 지내구…….”

그는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주변의 부러움을 살만큼 당시로서는 호사를 누리는 인물이었다. 노비에서 풀려난 것도 특이한 일이었다. 정초부 외에

도 재능 있는 노비가 더러 있었지만 다 그런 호사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엔 그의 시 몇 수가 아직까지도 구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적 재능은 워낙 뛰어나서 한양의 고관이나 저명한 문인들이 교통요지인 월계를 지날 때면 그를 찾아보려했을 정도였다. 심지어는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월계를 지나는 사람들은 초부를 기억하고 그를 추모하는 시를 지었다고 한다.

신광수란 유명한 시인은 여주를 가기 위해 월계를 지날 때 그를 보고자 했다.

“여기 사는 노비 정봉이란 사람이 시를 잘한다며? 내 한번 만나보고 가려고 하네.”

“지금은 나무하러 가고 집에 없소이다.”

“그렇소? 허허. “賣柴朝得江船米(아침에는 나무 팔아 배 위에서 쌀을 얻고), 倚樹秋吟峽寺鍾(가을에는 나무에 기대 산 속에서 종소리를 읊네).”

그러나 양인이 되었다고 생활이 나아지진 않았다고 한다. 정초부는 지금의 팔당대교 상류인 양근(당시 월계(月溪)라 불림)에서 살면서 나무를 해다 한양에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서울로 나무를 팔고 돌아가다가 보게 된 지금의 동호대교 부근 어딘가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에 매료되어 시를 짓기도 했는데, 그 시가 김홍도의 ‘도강도’에 실리기도 했다.

東湖春水碧於藍

白鳥分明見兩三

搖櫓一聲飛去盡

夕陽山色滿空潭

동호의 봄물은 쪽빛보다 푸르러

백조는 선명하게 두세 마리 보이네.

노젓는 소리에 모두들 날아가고

노을 지는 산 빛만이 강물 아래 가득하다.

이 시는 해 저무는 강의 고즈넉한 풍경을 묘사한 시로 빛깔과 공간이 아주 잘 어우러져 시정(詩情)과 화의(畫意)가 담뿍 느껴지는 좋은 시라는 평을 받고 있다.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가 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도강도(渡江圖)>란 그림을 그렸고, 그림의 상단에 정초부의 윗 시 ‘동호범주’를 써 놓았다. 그만큼 그의 시에는 대가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힘이 있었다. 그는 양인이 된 이후로도 전처럼 나무를 해서 배와 지계를 이용해 서울 동대문으로 들여와 팔았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남에게 고용되어 나무를 해다 팔았다고도 기록되어있다. 정조 당시에는 한강의 뚝섬에서 동대문 주변까지 땀감을 실어오는 이가 많아 큰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경기 일대에서 땀감을 한양으로 공급했던 것이다.

정초부는 자기를 대변하는 나무꾼의 신세를 그린 시도 지었다.

‘시인의 남은 생애는 늙은 나무꾼 신세 / 지계 위에 쏟아지는 가을빛 쓸쓸하여라
동풍이 장안대로로 이 몸을 떠다밀어 / 동대문 제이교를 새벽녘에 걸어가네’

그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삶의 애환을 특유의 서정적 필치로 시에 담아 내기도 했다.

‘한밤중에 다락에 오른 것은 달빛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침 세끼 곡기를 굶은 것은 신선되려는 것 아닐세’

그가 언젠가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관아에 가서 쌀을 꾸려고 했다. 그러나 관아의 호적대장에 그의 이름이 없었다.

“종이라서 누락된 것일까? 오늘도 식솔들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군.”

그는 서글픈 생각이 들어 다락에 올라가 시를 읊었다.

산새는 옛날부터
 산사람 얼굴을 알고 있건마는
 관아의 호적에는 아예
 들 늙은이 이름이 빠졌구나.
 큰 창고에 쌓인 쌀을
 한 톨도 나눠 갖기 어려워라
 강가 다락에 홀로 올라 보니
 저녁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네.

(山禽舊識山人面, 郡籍今無野老名, 一粒難分太倉粟, 江樓獨倚暮烟生)

어느 날 고을원님이 정초부의 시를 우연히 접하고 포졸을 불러들였다.
 “아니 이 시를 참말 노비가 지었던 말이나? 내 확인해 볼 터이니 관아로 불러들이거라.”

정초부는 관아에 불려가 원님 앞에서 직접 시를 지어 보였다.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이 소문은 금세 사방에 퍼졌고, 정초부는 양근의 명사 반열에 끼이게 되었다.

조선 후기 최고 시인들의 작품을 실은 <병세집>에는 정초부의 시가 무려 11수나 실려 있다. 그의 시에 감명 받은 양반들이 그가 살던 월계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정초부의 시가 실린 조선시대의 시선집은 발견된 것만 10여권에 이른다.

여춘영의 문집, <헌적집>에는 정초부에 대한 시와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시 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까지 실려 있다. 여춘영은 정초부의 시를 사대부 사회에 널리 소개하며 그를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신분의 벽을 뛰어 넘어 깊은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초부가 나이 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자기 집 노비이긴 했지만 그를 평생 친구이자 스승으로 삼았던 여춘영으로서는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운을 차리게. 자네가 없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시를 짓겠나.”

“소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요. 세월이 장사가 있나요? 소인이 혹 죽더라도 대감마님은 좋은 시를 많이 지으셔야죠.”

“글쎄, 자네 없이 시 짓는 일이 재미있을지 모르겠네. 이 사람아, 이 다음엔 부디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정초부(鄭樵夫.1714~1789)가 나이 76세로 세상을 뜨자 여춘영은 슬픔이 컸다. 그를 양지쪽에 잘 장사지내주고 눈물을 흘렸다.

“당대에 나기 어려운 시인이었어.”

여춘영은 “어릴 때는 스승, 어른이 되어서는 친구로 지내며, 시에서는 오로지 내 초부뿐이었지”(少師而壯友, 於詩惟我樵)라고 정초부를 추억하기도 했다. 그를 장사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는 일화가 문헌에 전해진다.

“저승에서도 나무하는가?(黃壚亦樵否) / 낙엽은 빈 물가에 쏟아진다(霜葉雨空汀)
/ 삼한 땅에 명문가 많으니(三韓多氏族) / 내세에는 그런 집에 나시오(來世托寧馨)”

그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뜻한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시이다.

이 외에도 그를 추억하며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의 시집 <헌적집>에 정초부를 그리는 만시(輓詩) 12수가 담겨있다. 그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 지역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정초부는 영·정조 시대 융성한 문화의 한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노비였으나 당대 나라를 대표하는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천재시인, 그리고 노비를 노비로 보지 않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양반 여 씨 문가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당대에 매우 귀감이 될 만한 소중한 역사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KBS 역사스페셜

마을주민 제보(한넉교 : 현절사 도유사)

인터넷 자료

<집필 : 이종남>

청석바위 옛이야기



너른 골 청석 공원에는 청석바위가 있다.

청석바위는 사내천(목현천)과 경안천이 합류하는 수하리 물 건너 영은 미술관 앞에 있다. 지금은 퇴적층이 쌓이고 쌓이면서 바위의 윗머리 부분만 조금 남아있어서 멀리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지만 5~60년 전만해도 꽤나 덩치가 큰 바위였다.

〈청석공원〉이란 이름이 생겨나게 된 연유도 청석바위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아주 먼 옛 이야기거나 전설속의 바위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른 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토박이 광주사람들은 물론이지니와 1960년대에 이주하여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는 광주시민이라면 청석바위를 모를 리 없건만 아련한 기억에서마저도 희미해져가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다.

경안천은 폭이 넓으면서도 물이 맑고 수심이 깊었다. 여름이면 경안천변 동삼구, 수하리, 안 통미, 뿐만 아니라 안골 역말 탄벌리에 사는 조무래기들의 물 놀이터가 바로 경안천의 청석바위 근처였었다. 동삼구와 수하리 총각 처녀가 달밤에 인적을 피해 청석바위 근처 갈대숲에서 남 몰래 사랑을 속삭이며 미래를 다짐하였던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물이 맑아서 잡은 민물고기를 생 고추장에 날것으로 찍어먹어도 디스토마에 걸린다거나 다른 탈이 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데도 광주에서 태어나 토박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저 이런 이야기들 속의 청석바위가 잊혀지고 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고유의 애뜻한 이야기들이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 씨 가문이 광주로 이주하여 소나무 숲속의 한 마을에 뿌리를 내린 것은 연산군 조의 일이었다. 연산군(1494-1506)은 성종의 큰 아들로 1483년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이듬해인 1494년에 조선의 10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 초기에는 국방에 주력, 왜구를 물리치고 빈민구제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선정을 베풀기도 하였으나, 훈구파의 정치적 공략과 어린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된 성격상의 문제로 1498년(갑자사화)과 1506년(무오사화)등 대규모 사화를 일으켜 사림파 학자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언관제도를 대거 축소하는 등 폐륜을 저지르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벼슬을 그만



두고 한양을 떠나는 선비들이 늘어만 갔던 것이다. 한봉씨의 선대가 외진 골 광주로 이주하게 된 것도 연산군의 학정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송정 골로 숨어든 한봉씨의 고조부께서 생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천민들이나 하는 노동이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았다.

송정마을 윗동네 밀목에는 나무가 울창했다. 나무를 베어다 시장에 팔기도 했지만 가솔이 연명하기에도 늘 부족하여 끼니를 건너뛰기 일쑤였다. 어찌하여야 자식들이 배를 곯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지만 배운 기술도 없고 송곳 하나 꽃을 땅땀기가 있을 리 만무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패물을 팔아 연명하거나 이웃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근근이 생활을 해 왔지만 신세를 지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 날밤을 하얗게 새우며 궁리를 해도 뾰족한 수를 찾을 길이 없었다. 야밤에 도주 하듯 버선발로 숨어든 곳이 깊고 깊은 산골 송정골이었으니 그 삶의 피폐함이란 눈뜨고 보기조차 민망했다. 산목숨 목구멍에 거미줄을 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봉씨 고조부께서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큰 마을로 내려갔다. 농사철이 지나 일자리는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느 댁 머슴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나무 물통을 짊어지고나와 개울물을 길러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변쩍 머릿속을 스치는 묘안을 떠올리게 되었다.

밀목에는 큰 나무가 많지! 그 나무를 베어다가 통을 만들어 팔면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서울 장안에서도 나무로 된 물통으로 물을 길어 나르거나 인분을 실어 내는 것을 보았지만 예사로 보았었다. 한봉씨 조부께서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젊은이! 그 물통을 어디가면 살 수 있겠소?”

“이 근방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값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왜 그러시죠?”

“네 아네요. 좀 알아 볼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거면 됐어. 앞으로 배는 골치 않을 수 있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젊은이가 물통을 지고 가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한봉씨 고조 부님께서 가솔을 모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다.

“여보! 늘 끼니걱정을 끼쳐서 미안 하오.”

“아니에요. 어디 영감님 탓인가요. 나라님 탓이지요.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천지신명께 감사한 일인걸요.”

언제나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의 의사결정에 다소곳이 따라주는 현숙한 부인이었다. 예까지 따라와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촌부로 물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귀티 나는 고상함은 언행에서도 배어났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 일을 시작하면 일손에 크게 보탬이 될 것어요.”

“아니 무슨 일을 시작 하시려는데요?”

아이들과 부인의 기대에 찬 눈빛이 반짝거리자 차마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하는 남편이었다.

“윗말 밑목에는 백년을 훨씬 넘긴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지 않소? 그 나무를 베어다 통나무 통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팝시다!”

귀천을 가릴 형편은 아니었지만 해본 경험도 없이 어찌하여야 할지 부인은 어안이 병병하여 말문을 열지 못했다.

여러 날이 지나자 부인은 남편을 돕기로 결심을 굳혔다. 한양을 떠나 올 제 만약을 대비하여 꼭꼭 숨겨 두었던 폐물을 마저 내다 팔아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여 남편 앞에 내 놓았다. 배를 굶아가면서도 차마 팔아 치우지 못했던 금가락지와 은비녀였다.

“이 돈으로 통나무 통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입 하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했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어서 일이나 시작 하세요.”

다음 날부터 밀목 깊은 산골짜기에는 나무를 베는 툽질소리가 쓰~으 쓱 산을 울렸다. 잔가지는 모아 땀 감으로 시장에 내다 팔고 큰 동치는 물통 크기로 잘라 그늘에서 말렸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대패로 밀고 정으로 속을 파내고 다듬어서 만들어진 통나무 물통은 쪼가리를 이은 여느 물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우선은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지계에 두 개의 물통을 매달고 동네 어귀 우물로 나가 물을 길러오기 시작했다. 나무를 통째로 파서 만든 그 물통은 이웃 동네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물통이었다. 질그릇 동이로 물을 길러 먹어야 하는 일이 여자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고충이기도 했으나 지계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신기했기 때문이었다. 동네 여자들이 모여들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물통은 어디서 구하셨지요?”

“네,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손수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만들어 드리지요.”

“꽤나 공이 많이 들어 값이 비싸겠지요?”

그렇게 하여 구입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입소문은 금시 읍내로 퍼져 나갔고 더 멀리 이천이나 여주 용인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했다. 종당에는 사람을 고용하여 대량 제조까지 가능해졌다. 만들기가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돈이 모아지자 좀 더 고급스런 물건을 만들기로 했다. 소반이나 작은 함지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무 그릇을 만들었다. 기술이 향상 되어가자 제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옷 칠을 하여 윤기가 잘잘 흐르고 습기를 막으니 고급스럽고 질그릇이나 사기그릇과는 달

리 깨어지지 않아서 반영구적이었다.

고조부께서는 큰돈을 모으면서 인근의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하였고 한봉씨 아버지 대에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머슴을 두고 농사일에 전념하기에 이르렀다. 울창하던 밀목의 나무숲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새오개(이현), 목감(모개미마을), 이현(이배재), 용생굴까지 깊이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냈다. 가업이 번창하자 먹고 사는 일에 근심이 없어진 반면 한봉씨 할아버지 이전부터 손이 귀한 집안이 되어 한봉씨는 삼대독자로 태어났다. 어렵사리 건진 외아들의 종손인 한봉씨가 장가든지 십 년이 다 되었건만 손이 태어날 기미는 전혀 없었다.

“여보 소실을 얻던지 씨받이라도 들여 가문에 대를 잇도록 하세요.”

“원 참 별소릴 다하시는구려! 벌써 노망이라도 나셨소? 아직 때가 아닌게지요.”

내외간의 금슬에 금이 간 것도 아니요, 둘 다 건강하여 외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인심도 후하여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후덕한 집안으로 동네 칭송이 자자했다. 머슴살이 하던 덕만이 장가들어 아들만 셋을 낳고 보니 주인장 한봉씨에게 송구한 마음 가실길이 없어 눈치를 봐야했다.

따사로운 햇살이 울안 장독대에 내려앉은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스님이 한봉씨댁 문전에서 묵탁을 두드렸다.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던 한봉씨 부인이 일손을 거두고 광에서 쌀을 한바가지 퍼 담아 스님께 공손히 시주를 드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돌아서려던 스님이 망설이며 부탁인지 당부인지 한마디 하시고는 휘적 휘적 동구 밖으로 사라지시는 것이었다.



“백마산 극락사에서 백일기도를 드린다면…….”

백일기도를 드린다면 어찌 된다는 말씀이실까? 부인은 아무리 고개를 까웃거리 봐도 알듯 말듯 한 뒷말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 잠 자리에 들자 남편에게 낮에 스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다.

“여보 낮에 스님이 다녀가셨어요.”

“새삼스런 일이 아니지 않소.”

“그런데 백마산 극락사에서 백일정성을 드린다면…….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백일기도를 드린다면 손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부인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시지요.”

“여보! 이 크나큰 집안일은 어찌하고요?”

“부인! 이 집안일이 크고 소중한들 자손을 보는 일에 비할 바가 아니질 않소.”

극락사에 들어와 백일정성을 드린 지 삼개월여 동안 한봉씨는 사람을 보내 시주를 하며 부인의 건강을 챙기기도 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리란 설렘으로 뒤척이다 한봉씨 처는 새벽녘에야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안개가 자욱한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홀연히 향긋한 바람이 일더니 산신령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인도 하는 것이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는 허공에 뜬 구름을 타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한 없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선 곳은 명석 한 자락만큼 넓은 양푼바위였다. 주변에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낮설지 않은 곳이었다.

경수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물가에서 보냈고 봄나물을 뜯으려 수도 없이 드나들던 사내천과 경안천이 마주치는 두물머리 바로 그 근처였다. 산허리마다에는 진달래가 만발하여 분홍빛의 꽃구름으로 피어나고 바

람결에 실려 오는 향긋한 향기는 백합향보다 짙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오간데 없고 그녀는 구름위에 사뿐 내려앉은 자세로 바위위에 앉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자 동편 산 봉우리에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햇살 한 줄기가 그녀의 몸을 비추자 전신이 뜨거워지면서 배가 남산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다.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둘러보니 바위는 오 간데없고 범당안의 부처님만이 은은하고도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형용할 수없는 묘한 기분은 꿈에서 깨어나서도 꿈속을 헤매는 듯 땅에 발을 디디도 허공을 딛는 것만 같아 묘한 기분이 혼란스러웠다. 남산처럼 불러졌던 배는 꺼져 버렸고 예전 그대로였으나 그 허망하고도 기이한 꿈은 예삿일이 아닌 듯싶어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요사채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 하지 못했다. 모르긴 해도 배가 불러졌다는 것은 백일기도의 은덕으로 임신을 예고함이 아닐까 생각되었기에 행여 부정이라도 탈까봐 조심을 했던 것이다.

백마산 극락사에서 돌아온 이후 그녀의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있어야 할 달거리가 멎고 젓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젓꼭지가 가려워지고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할 수 없는 태기가 분명하고 눈치 빠른 부인네들이 궁금해 안달이 났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큰 댁 마님 댁에 경사스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마님 안색이 전과 다르거든.”

“그래 맞아! 마님의 백일정성에 부처님이 감응하신거야!” 산달이 다가오자 부인은 딸을 낳으면 달래라 이름 짓고 아들을 낳으면 청석이라 부릅



시다. 꿈에 자신이 앉았던 검푸른 양푼바위와 주변에 만발했던 진달래를 연상하고 남편에게 당부를 했었다.

“그리합시다! 그 소원이야 내가 왜 못 들어 주겠소!” 이듬해 춘삼월 대보름 달 밝은 밤에 한봉씨댁에는 큰 경사가 났다. 노산이라 온 동네 안팎이 걱정을 했지만 오랜 진통 끝에 기어이 득남을 했다. 주신이가 거두지 않으실까 싶어 조용히 두 손 모아 합장 기도하는 부인의 모습은 그 어려운 난산의 경황에도 차분하여 경건하기까지 했었다. 부인이 부탁하던 대로 아들의 이름을 <청석>이라 이름을 지었다. 집에서 따로 부르는 이름은 쇠돌이라 하였으니 돌처럼 쇠처럼 단단하게 잘 자라달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리하여 주변에서는 쇠돌이란 이름이 약간 촌스러웠지만 모두 건강히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청석>이란 원래 이름은 오히려 생소하게 되었다.

“쇠돌아 놀자! 명돌아 놀자!” 짓궂은 아이들이 놀려대기도 했지만 부잣집 아들이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쇠돌이 나이 열다섯이 되었다. 입가에 푸르스름하게 남성의 상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부의 이성적 본능의 변화역시 급속하게 일어났다. 이유 없이 울적해지고 글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서당 선생님의 꾸중을 듣기도 했다.

“쇠돌이! 이 녀석! 글공부에는 관심 없고 멍청하니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칠사산 자락을 멀리 바라보던 쇠돌이가 깜짝 놀랐다.

“네! 스승님 아닙니다.”

“이놈! 나를 속이려 들어! 네 뱃속도 훤히 꿰뚫어 보는 내다!”

쇠돌이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다름 아닌 수하리 처녀 달래였다. 달래는 박첨지댁의 세 딸 중 맏이었으며 올해 나이 열다섯으로 복사꽃처럼 화사하

게 피어나는 해맑은 처녀다. 봄이면 동네 처녀들과 어울려 사내천과 경안천이 만나는 두물머리계로 봄나물 캐러 다녔다. 종뎡이 가득 봄나물을 뜯어오거나 칠사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 산나물을 뜯어 들였다. 달래는 베틀에 앉아 계신 어머니대신 집안일을 두루 거드는 박첨지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살림밧천이었다.

“달래야! 빨리나와! 나물 캐러 가자”

성질 급한 옆집 처녀 분이가 으레 먼저 달래를 불러냈다.

“응 나 설거지 끝내고 나갈게 기다려, 언니!”

국수봉 자락을 휘감아 돌아 설월리, 서하리로 흐르는 경안천변에는 물안개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종달새 하늘 높이 떠서 조잘대며 처녀들을 유혹했다. 물 오른 버들강아지가 탐스럽게 피어나 물결에 하느적 거리며 손짓하는 봄이다. 처녀들이 쉬엄쉬엄 버들가지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부는 일은 나물 캐는 일에 한결 즐거움을 더하기 마련이었다. 종뎡이 옆에 놓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버들피리 불어대는 정경은 한 폭의 멋스런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었다. 이런 봄날은 글공부하던 사내아이들 마음마저 들뜨게 했다.

“쇠돌아! 멍돌아! 바람이나 쏘이러 나가자!”

언제나 먼저 설치고 부추기는 건 최천말에 사는 칠성이었다. 칠성은 큰 다리를 건너오면서 나물 캐는 처녀들을 힐끗거리며 속으로 궁리를 해둔 게 있었다. 쇠돌이가 칠성을 따라 들판으로 나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기에 얼른 따라나서기로 한 것이다. 파발교를 지나 논둑길을 거닐다보면 국수봉이 내려다보는 두물머리계 이른다. 그 아래 질펀한 너른들에 점점이 아가씨들이 나물 캐는 정경을 슬쩍 훑어보고 야릇한 미소를 짓는 칠성이었다.

“쇠돌아! 저기 저 양푼바위계로 가자!”

“물을 건너야 하잖아!” 가물어서 개울물은 깊지 않았지만 신발과 버선을 벗고 건너야 하니 귀찮기도 하려니와 쇠돌이는 물을 싫어했다.

“걱정 말아! 내가 너를 업고 건너가면 돼!”

귀하디귀하게 자라는 쇠돌이는 제 나이포래보다 왜소하였으나 한 살 위인 칠성이는 우람한 체격이었다. 어른 못지않게 나뭇짐도 거뜰히 지고 인근의 산을 오르내리는 칠성이였다. 돌이는 양푼바위에 걸터앉아 버들피리를 불었다. 칠성이가 만들어주며 가르쳐 주는 대로 불다보니 쇠돌이도 점차 꽤나 능숙하게 불었다. 건너편에서 나물캐던 처녀들이 자리를 옮겨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능청맞은 칠성이는 못 본 체 하며 더욱 구성지게 피리를 불었다.

“뽕리리! 뽕리리, 뽕릴리!” 종달새가 머리위에서 날갯짓으로 팔랑이며 화음으로 화답했다. 칠성이는 수하리 처녀 분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칠사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먼발치로 한번 보고나서 그녀가 사는 집도 확인해 두고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참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비로소 쇠돌이를 예까지 불러냈었던 것이다. 녀살좋은 칠성이가 분이에게 다가갈 수작을 걸었다.

“최친말에 사는 칠성이라고 합니다. 아가씨는 수하리에 사시는 분이 아가씨지요?”

“아니! 망측해라.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처녀 총각이 어울리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여 인간의 본능인지라 자연스럽기 마련이었다. 허나 쇠돌이는 달래처녀와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후회가 되어 그 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달래의 모습이 삼삼하여 글공부시간에도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던 것이다. 달래는 달래대로 본명이 청석이라는 쇠돌 총각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은 사실이

있으나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애를 태웠다. 경안천 양푼바위계로 나가면 그 총각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밖에 인기척이 났다.

“달래야 나와.” 그 소리가 나기 무섭게 뛰쳐나간 달래는 분이와 엇그제 그 바위 근처로 나갔다. 나물 캐는 바구니와 부엌 칼 하나씩 들고서……. 아니나 다를까, 이미 양푼바위 위에서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두 총각이 나란히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다. 다름 아닌 칠성이와 쇠돌 도령이었다.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사랑이 싹트는 그 이유를 조물주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임을 다투어서 막으랴. 처음에는 쌍쌍이 만났지만 차차 몰래 만나고 싶어지는 게 남녀관계였다. 으스름달밤이면 청석이 먼저 나와 양푼바위에서 달래를 기다렸다. 양푼바위는 그의 어머니가 극락사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던 마지막 날 꿈속에서 산신령님께 인도 되어 정기를 받았던 검푸른 바위였으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둘이는 손가락을 걸어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달래아씨!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때가 오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백년가약을 맺기로 해요.”

“청석 도련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겠어요.”

“밤이 이슬하니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아쉬운 작별을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날 달 밝던 밤의 언약이 아주 빨리 쉽게 이루어지리라곤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일이었다.

평화롭던 마을에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조선 선조 25년(1592년) 임진년에 왜가 쳐들어왔다. 임금과 조정 관료들은 저희들만 살겠다고 난을 피해 개경을 거쳐 평양, 그곳까지 왜군이 밀어닥치자 조선의 변방인 의주



행재소로 피난을 했다. 외진 산골 광주 골은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 전쟁 초기에 청석이와 달래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하고 서둘러 두 사람은 약혼식에 이어 혼인식을 단출하게 올리게 되었다.

“쇠돌이네 듣거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여 저어된다만 네가 맘에 둔 처녀가 있다니 혼인을 하면 좋을 듯싶구나!”

“하지만 전쟁 중이라 썩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아버님!”

“내 맘인들 아니 그러하겠나마는 과년한 처녀를 둔 집안도 매한가지일 것이니라.”

워낙 손이 귀한 이한봉 씨가 아들의 애길 전해 듣고 빨리 후손이라도 하나 얻어 보고픈 간절함에서였다. 이한봉 씨가 매파에게 다리를 놓아 수하리 박첨지댁을 먼저 찾아가게 하여 순탄하게 이루어진 혼사였다. 두 사람의 나이 열일곱이었다. 박첨지 역시 과년한 딸이 혹여 전쟁 중에 왜놈에게 끌려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여 근심하던 차였다.

양푼바위에서의 언약대로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신혼의 단꿈을 길게 누리기엔 시절이 평탄치가 않았다.

쇠돌이와 칠성이는 의병을 자원하여 왜군에 맞서 싸우기를 다짐하고 아버님께 아뢰었다.

“아버님! 저 의병으로 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놈과 싸우겠습니다.”

한봉 씨는 귀하다귀한 외아들을 전쟁터로 내 몰고 싶지 않았으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처사는 용납 할 수 없는 양심을 지닌 분이셨다. 머느리에게 미안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청석이와 칠성이는 국수봉에 집결한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직접 싸우지는 않았지만 봉화를 올려 전황을 곳곳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왜란에 참여하였다. 정유재란 때 다시 쳐들어온 왜군은 곳곳의 청장년들과 기술자들

을 마구 생포해서 일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청석(쇠돌)이와 칠성(칠성)이도 생포되어 왜군 진영으로 끌려갔는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갓 혼인한 새댁의 마음이야 오죽했으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밤이면 양푼바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국수봉에 떠오르는 달을 보며 무사귀환을 빌었다.

쇠돌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를 얻게 된 기이한 인연을 생각하며 극락사를 다녀오는 길이면 양푼바위계로 가서 바위를 쓰다듬으며 아들이 무사하기를 빌곤 하였다.

어느 달 밝은 밤 한봉씨 부인이 양푼바위계로 향하던 중 웬 여자가 바위 위에서 국수봉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만히 숨죽여 가까이 다가가니 다름 아닌 며느리였다.

“네가 웬일로 여기에 나왔느냐? 밤이 이슥한데…….”

“어머니 죄송해요. 그이와 처음 만나 언약을 했던 장소가 여기라서 무사귀환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랬었구나! 참으로 인연이라는 게 기이하다면 기이한 하늘의 이치로구나!”

“네 남편 본명이 청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얻게 된 연유가 바로 이 양푼바위니라”

어렵사리 아들을 얻게 된 이런 저런 사연을 며느리에게 털어 놓았다. 아들의 이름을 청석이라 짓게 된 사유를 며느리에게 모두 털어 놓았다. 그 날 이후 고부간은 매일 밝은 달 아래 양푼바위에 올라 지성으로 아들의 무사귀환을 빌고 또 빌었다.

기나긴 전쟁은 7년을 고비로 끝이 났다. 삼천리강산 어느 한곳 성한데



없이 난장판으로 전혼을 남기고 7년여의 전쟁은 끝이 났으나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아 깊은 골이 패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리라는 어머니와 아내의 간절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생사마저 확인 할 길은 요원하기만 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여겨 명복이라도 빌자는 의견이 문중에 들었다. 어느 날 한봉 씨가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여보! 아무래도 그 녀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보오!”

이제는 그녀석의 명복이라도 빌어주어야 할 것 같다며 한봉 씨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문중의 뜻을 부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아이가 반드시 돌아 올 것 같은 마음 접을 수가 없어요. 여보!”

“그 마음 낸들 왜 모르겠소. 이제 마음을 접읍시다.”

그리하여 날짜를 잡아 제사를 지내기로 작정을 했다. 칠월 칠석을 며칠 앞둔 내일 모레가 청석이 제삿날로 정해진 날이었다. 하늘도 슬퍼하는지 부스부슬 비가 내렸다. 어미 된 마음이야 오죽하랴만 자식하나 없이 청상과부로 이집의 귀신이 되어야 하는 달래의 마음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렇게 하루해가 뜨고 하루해가 서산을 넘었다. 땅거미가 질어갈 무렵 통미 마을은 별집을 쭉서 놓은 듯 들끓었다. 동구 밖으로 사람들이 몰려나갔다.

“한봉 씨 아들이 돌아왔데! 최천말 칠성이두!”

“아니 그게 정말인가!”

한봉 씨택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온 동네가 왈칵 뒤집힐 일이었다.

사명대사(속명 임응규)는 1604년 2월 조선14대 왕 선조의 명을 받고 그 해 8월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8개월간 일본 조정과 협상 끝에 전란 때 잡혀간 조선인 포로 3,000명을 이끌고 현해탄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명대사의 외교적 수완에 힘입음이었다. 사명대사는

1605년 4월에 조선으로 돌아와 6월에 국왕에게 보고를 했다. 돌아온 3,000명 중에 청석이와 칠성이 그 외 동네 청년 몇몇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양푼바위에서의 기원이 하늘에 닿았음이라고 원근 마을로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었다.

국수봉 아래 옛 양푼바위는 청석이의 출생 설화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청석바위>라 불리어지게 되었다. 청춘남녀가 청석바위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에서일까? 달밤이면 동삼구, 송정리, 경안리, 수하리 총각 처녀들이 남 몰래 사랑을 속삭이는 청석바위가 되었다. 이제는 전설속의 이야기로만 전해질 뿐 그 청석바위는 밀려드는 토사에 묻혀 옛 모습조차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갈 위기를 맞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문헌

광주의 지명 유래, 효의 고장 광주,
통미(송정동) 마을 주민

〈집필 : 임금재〉

한 서린 열녀바위



“연옥아! 거기 앉아서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네, 마님.”

“네가 우리 집으로 온지 벌써 십년이 다 되었구나. 여덟 살 때 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너를 딸처럼 여기며 데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를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구나.”

“마님 저를 보내시다니요?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연옥이라고 불린 처녀가 의아한 눈길로 마님을 쳐다보며 앉은 자세를 바로 잡았다. 비단 보료위에서 연옥에게 말을 건네는 삼강오륜을 수놓은

여덟 폭 병풍이 둘러쳐진 안방이다. 오동나무 장롱과 문갑이며 경대는 먼지 한 점 없이 윤이 나도록 반들거렸다.

“그래 연옥아 이제 너도 짝을 정해줘야겠구나. 이번에 진사어른이 광주 친구네 이웃에 사는 착실한 총각하고 연분을 맺어주려고 다녀오셨단다.”

“그럼 저를 시집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마님 곁을 떠나기 싫어요!”

“아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짝을 정해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하는 거란다.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살림을 해준 노고를 갚으려고 어른과 내가 네 혼인을 치러 주기로 했다.”

연옥은 혼인이란 마님의 말에 별별 가슴이 떨려왔다.

“저는 시집갈 생각이 없어요.”

“연옥아, 사실 너는 종의 신분이 아닌 양반가문의 딸이란다. 네가 어려서 우리 집으로 올 때 네 아버지가 투전에 미쳐서 집안이 풍비박산을 했더란다. 네 할아버지가 핏병으로 돌아가시고 네 엄마까지 폐병이 들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물에 빠져 죽었단다. 네 아버지가 어린 너를 거둘 수 없다며 종살이로 주겠다고 하길래 우리 집으로 데려 오도록 했었던단다.”

“마님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얼마 전에 과천 노름판에서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구나, 네 마음고생과 몸 고생을 왜 내가 모르겠느냐, 이제 너는 살림숨씨가 나무랄 데 없이 야무지고 알뜰하니 누구의 배필이 돼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드는구나, 네 신랑감은 최 씨 집안의 청년이란다. 친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는 개가 했다는구나 그래서 자식이 없는 큰집에서 양자로 삼았는데 공부도 하고 착해서 너 하나는 잘 거둘 거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는 마님은 신이 넘은 부인이었다. 이포나루 부근의 많은 전답을 소유한 토호양반의 안주인으로 인품이 넉넉하면서도 정갈한 부인이었다.



한때 남편이 관직에 있을 때 당파에 휘말려 탄핵을 당할 처지였는데 연옥의 할아버지가 임금께 상소를 올려 귀양길을 면한 은혜를 늘 잊지 못하던 부인이었다. 부인에겐 한양에서 관직생활을 하는 두 아들 외에는 딸이 없었다. 연옥을 데려오면서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고 살림을 가르쳤다. 눈썰미가 좋고 야무진 연옥은 출생의 서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없이 부인의 시중을 들며 부엌살림과 안살림을 배워나갔다.

연옥이 열여덟 살이 되자 부인은 연옥의 앞날을 위해 혼인을 시키기로 진사어른과 의논했다. 집에도 총각머슴을 비롯해 부리는 하인들이 여럿 있었지만 딸처럼 생각되는 연옥의 배필로는 마땅하지 않았다. 아니 인근으로는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멀리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보내 딸네 집처럼 드나들고 싶다는 부인의 말에 진사어른은 광주에 사는 벗을 통해 인근에 사는 가난한 양반집안의 혈혈단신 총각을 연옥의 배필로 보고 온 터였다.

연옥은 부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어려서 헤어진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의 모습까지 선명히 남아있는 연옥의 기억에서 가족과 남편은 어머니의 눈물뿐이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대신 가족의 생계를 짚어낸 채 고생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아 온 연옥은 어렸지만 절대로 시집은 안 갈 것이라고 다짐 했었다.

큰 부자였다는 할아버지가 외아들을 위해 한양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아버지는 공부대신 한량들과 어울려 노름판을 쫓아 다녔다고 했다. 혼인을 시키면 괜찮을 것이란 할아버지의 바람도 허사였다. 곡식은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가 혼인 때 해온 패물이며 진솔옷가지까지 노름판으로 들고 나갔다. 어머니의 눈물도 할아버지의 노여움에도 아버지의 노름 벽은 고래 등 같은 기와집까지 날리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남의 허름한 사랑채로 쫓겨 앉으

면서 밥을 굶는 날이 허다했다.

어머니는 날품을 팔아 식량을 사서 식구를 먹여 살렸다. 할아버지가 울화병으로 자리에 누워도 아버지의 노름은 날을 새우기 일쑤였다. 운 좋게 노름판에서 돈을 따도 아버지는 절대로 돈을 내 놓은 적이 없었다.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 어찌다 집에 돌아오는 날은 곤드레만드레 술과 잠에 취해 쓰러져 자곤 했다. 할아버지의 시중을 들다가 아버지가 오는 날 문틈으로 내다 본 연옥의 눈에 지붕 서까래 틈새에 무언가 숨기는 게 보였지만 그게 지전몽치인걸 눈치 채지는 못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방탕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어머니는 깊은 이포나루 한복판으로 몸을 던졌다. 등에는 세 살 된 연옥의 남동생을 업은 채였다.

“연옥아 이 에미를 원망하지 말거라. 에미가 보고 싶거든 그저 열심히 살아서 꼭 좋은 신랑 만나야 한다. 너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어찌 이다지 무겁단 말이나?”

어머니는 썩한 눈망울로 연옥을 바라보며 울었다. 쿨럭 쿨럭 기침을 할 때마다 한줌씩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베개를 적시는 밤이었다.

“엄마 죽지 마! 내가 커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엄마 죽지 말고 연식이 하고 나하고 오래오래 살아 엄마!”

“오냐, 우리 연옥 어디가도 사랑받고 커야 할 텐데 부모 잘못 만나 어린 것이 어찌 살꼬!”

어머니가 죽던 날 연옥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겁이 났다. 그건 아버지의 매질보다 더 두려웠다. 죽은 어머니를 영원히 못 본다는 것도 깨달았다.

연옥은 어머니까지 죽고 나자 아버지가 무서웠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



고 죽은 엄마와 세상을 욕하는 아버지였다.

“너도 키워보아야 이 애비를 원망하겠지. 그럴 바엔 차라리 부녀간 인연을 끊자.”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 온 아버지는 어린 연옥을 끌고 어느 기와집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는 부인이 건네주는 몇 푼의 돈을 받아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게 연옥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이구! 어린 것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렇게 깡 말랐노? 딱해라.”

부엌일을 하는 행랑어머미 있었지만 부인은 소소한 심부름을 시킬 연옥이 마음에 들었다. 온통 버짐이 변진 얼굴에 꼭 다문 입술 많은 슬픔을 어린나이에 알아버린 연옥이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김진사 댁이라고 불리는 그 집은 연옥에겐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부잣집이었다. 김진사 댁에서 또 다른 곳으로 내칠까 두려워 어린 연옥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복종과 순종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마님의 방을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쳤다. 진사어른 사랑채의 재떨이와 요강도 눈이 부시게 닦아놓는 일도 연옥의 몫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바늘귀를 꿰며 부인의 어깨를 주물렀다. 살얼음이 낀 개울물에 빨래를 하느라 손이 터져 피가 나도 깨끗이 무명옷들을 빨아 널었다.

안방마님은 어린 연옥에게 자신을 시중들게 하면서 살림살이를 가르쳤다. 좀처럼 말이 없는 아이가 연옥이었다. 살갑고 다정한 아이이길 바랐던 부인은 곁을 주지 않는 연옥이 야속했다. 묻는 말에 겨우 대답하는 통 말이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손재주가 아까워 아랫것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바느질이며 수놓는 방법, 다듬이질과 길쌈까지 틈이 날 때마다 가르쳤다. 연옥은 작은 손으로 빨래하길 좋아했다. 땃국에 절은 옷도 비비고 두드리고 새하얀 빛이 나도록 빨았다.

“아유! 조그만게 야무지기도 하지 빨래가 아주 빛이 나네. 어쩜 저손으로 이렇게 옥빛이 나도록 빨랴 하노.”

“그러게 말이유, 어른도 힘 드는 빨래를 작은 손으로 빠는 것 좀 보sey. 이담에 누가 데려가도 색시 하나는 잘 데려 갈 거유.”

“연옥이를 저 댁 마님이 딸처럼 키운다더니 온갖 살림살이는 죄 가르치는 갑더만유. 밤에는 길쌈도 하고 수도 배운다 합데다.”

아낙들은 개울가에서도 연옥을 칭찬하며 은근히 며느리 감으로 탐을 냈다.

한 해 두해 세월이 흐를수록 연옥의 살림 솜씨는 안주인 못지않게 늘어갔다. 마님이 정해진 길일 날 미리 손질한 메주로 장을 담그고 윤이 나도록 항아리들을 닦아놓는 일이며 녀 잠을 잔 누에를 잠박에 올려 고치를 짓게 만드는 일까지 아낙네들이 해야 할 살림의 모든 방법을 마님과 행랑어멈으로부터 배우고 익혔다.

어느덧 연옥은 진사 댁의 큰 살림꾼이었다. 그러나 열여덟 살의 꽃다운 처녀 연옥을 마님인들 마냥 곁에 둘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딸처럼 세간장만을 해서 시집보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제 주인영감이 보고 온 혼처가 정해지면 연옥을 시집보내야겠다고 생각한 마님이었다. 연옥의 결정에 따라 혼인을 하게 되면 이집을 떠나야 한다고 마님이 누누이 강조했다.

연옥은 앞날이 막막하다고 생각했다. 한창 꽃다운 나이로 성장한 그녀를 우물가에서 또는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이리쿵저리쿵 연옥을 두고 칭찬하거나 흥을 보거나 못 들은 체 하면 그만이었다. 더러 추파를 보내는 머슴과 동네 청년들이 있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못 본 척 했다. 그러나 주인마님의 명령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시름에 젖는 날마다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옥이 비록 몸종처럼 꼬박꼬박 자신을 마님으로 부르며 제 신분의 선을 엄격히 지켰지만 부인은 연옥이 딸 같았다. 모든 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늘 진심이었다. 드디어 처서가 지난 가을날 진사어른은 연옥을 시집보낼 날을 받았다. 한때는 한양서 크게 벼슬하는 아들 곁으로 올라갈 생각도 해온 그였으나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이며 선산을 사는 날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부인과 함께 한 마을의 지주로 살아 온 그였다. '저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사랑채를 드나드는 연옥이 없으면 허전해서 어쩔까?' 하는 생각으로 집의 머슴과 짝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터였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반상의 제도가 서서히 몰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남도에서는 전봉준이라는 녹두장군이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농민들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관청을 쳐부수고 한양으로 진격하다 처형됐다는 소문이 흥흥했다. 진사는 부인과 연옥을 사랑채로 불렀다.

“연옥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네 혼인 택일을 했다. 시월 열사흘 날이 제일 좋은 날이더라. 마님과 의논해서 섭섭지 않게 혼수며 살림 장만을 해 줄 생각이다.”

“대감마님.”

차마 싫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연옥은 그저 눈물이 핑 돌았다.

“영감, 연옥이 시집가기 싫은가 봅니다. 평생 처녀귀신으로 우리 집에 붙어 살 생각이면 총각귀신이라도 하나 붙잡아옵시다. 호~호”

부인이 연옥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농담을 하자

“귀신도 요즘은 연분이 있어야 한답니다. 연옥이도 신랑을 보면 좋아할 사내인데 언제 한번 데려와야 겠소.”

“그게 좋겠네요. 우리 딸 같은 연옥이를 데려갈 사내가 어떤 인물인지

나도 보고 싶군요.”

부인은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지만 연옥은 한숨을 내쉬었다.

혼사 날이 되었다. 부인은 진심으로 연옥을 위해 이부자리부터 밥그릇 여러 벌의 치마저고리와 혼수를 장만했다. 그동안의 고생을 생각해서 꽤 많은 지참금도 준비했다.

병풍을 두른 초례청에서 대례복을 입은 연옥은 정말 예뻐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지문이 닳을 정도로 거친 손을 원삼자락에 숨긴 연옥의 자태는 양갓집 규수처럼 아름다웠다. 드디어 나귀를 탄 신랑이 도착했다고 행랑아범이 전했다. 새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연옥과 맞절을 했다. 흰칠한 외모의 마른 사내였다.

마을의 소작인들과 노비 마을아낙들이 구경삼아 연옥의 혼례를 지켜보았다. 사내는 진사어른과 부인께도 큰 절을 올렸다. 연옥은 천천히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사슴처럼 깊고 순한 사내였다. 인상만으로는 거친 일을 도무지 하지 못할 정도로 착한 모습이었다.

진사내외에게 마지막 하직인사를 올린 연옥과 신랑이 나귀와 가마를 타고 동구 밖을 벗어났다. 벼 베기를 하던 마을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연옥의 앞날을 축하했다. 아낙네들은 눈물을 훔치며 잘 살라는 당부를 했다. '마님, 꼭 잘 살아서 옛 이야기 하며 다니러 오겠습니다.' 양다문 연옥의 입술 사이로 혼자 말이 새어나왔다.

연옥이 신혼살림을 차린 곳은 신랑의 큰 집 사랑방이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농사를 짓는 집이었다. 큰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자신은 죽더라도 대를 이을 생각으로 양자인 조카 정식을 장가들었다.

비록 종살이라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부지런히 일만하면 되던 진

사 댁과는 달리 천장에 쥐가 들끓고 끼니걱정까지 해야 하는 시집살림에 연옥은 기가 막혔다.

첫날밤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 눕지 않는 연옥을 보며 신랑은

“어떻소, 그대가 살던 진사 댁과는 달라서 많이 힘이 들거요. 그래도 날 믿고 우리 한평생 함께 살아갑시다.”

하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대도 고생을 많이 했구려. 손바닥이 온통 못이 박혀 있네요. 이 손이 섬섬옥수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면목이 없소이다.”

연옥은 손을 뿌리치지도 자리에 눕지도 않고 진사어른이 원망스럽다는 생각만 들었다.

새 며느리를 얻은 시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않고 새벽마다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때주었다. 가마솥 가득 물을 길어다 붓는 일은 남편이 하는 일이었다. 연옥이 들어 온 후로 살림이 불어난 방안은 신혼집이었다.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나도 말없는 연옥이 안타까운지 신랑이 따듯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둘이 노력하고 살림을 일군다면 뭐가 겁나는 게 있겠소. 이제껏 양반행세 하느라고 공부만 했는데 그대를 얻고 보니 장차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을 내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봅시다.”

따듯하고 부드러운 말이었다.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하는 신랑을 보며 연옥은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인간이라고 느꼈다.

“내 몇 가지 그대에게 약속하리다. 그대와 함께 사는 한 절대로 노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술을 먹지도 않겠소. 그리고 아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두 명만 낳을 생각이요. 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식구가 먹고 살 기반을

잡도록 노력 할 것ियो.”

정식의 말에 살포시 웃음을 띤 연옥의 눈동자가 빛났다.

이포 진사어른에게 연옥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던 정식은 연옥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 챘다. 마음고생 몸 고생한 그녀가 측은하면서 사랑스러웠다. 무조건 반말로 무시하고 하인취급을 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란 연옥이다. 남편인 정식의 말은 얼어붙은 연옥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연옥은 등잔불을 끄는 신랑의 품에서 이 예의바른 남자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부부라는 걸 비로소 의식했다.

며칠 만에 연옥은 대문 밖을 나가보았다. 첩첩산중 마을이었다. 서너 채담을 기댄 이웃 말고는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몇 채씩 이웃이 있었다.

이포나루의 드넓은 강물과 낮은 들녘은 땅을 기름지게해서 가을마다 벳가마가 몇 수레씩 들어오던 진사 댁이었다. 너무 다른 생경한 풍경이 펼쳐진 이 산골마을이 그녀가 평생 살아갈 곳이란 생각에 잠시 마음이 서글퍼지기는 했어도 그녀는 몽당비를 들고 깨끗이 마당을 쓸었다.

연옥의 알뜰하고 야무진 살림솜씨와 정식이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과 곡식이 차츰 그들의 살림을 운택하게 했다. 혼자 된지 오래인 나이 많은 큰 시아버지는 늘그막에 며느리인 연옥의 효도와 시중을 받으면서

“새 아가, 내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너무 고맙구나.”

하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대며 웃음을 달고 살았다. 연옥은 길쌈을 하고 큰일을 치르는 집마다 불려가며 솜씨를 뽐냈다. 정식도 늘어나는 살림에 재미를 붙여 좋은 일 굷은일을 가리지 않고 했다. 품삯으로 받아오는 돈은 연옥에게 맡겼다. 또한 일이 없는 날은 산으로 갔다. 험한 산에서 약초를 캐고 버섯도 따고 횡재하듯 귀한 산삼 몇 뿌리를 캐어오기도 했다.

시집 온지 일 년이 지나자 외양간에 누런 암소를 땀다. 부부의 발길이 자주 텃밭에 닿을수록 남들보다 더 많은 알곡을 거둬들였으며 곤재 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었다. 연옥이 태기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는 그날 밤 주무시듯 조용히 숨을 거뒀다.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연옥은 정성껏 장례를 치렀다.

열 달 후 연옥은 예쁜 딸을 분만했다. 몸조리할 사이도 없이 한길씩 자란 연초 잎을 따서 추녀 아래 줄에 널며 이포 마님에게 딸의 이름은 지어달라고 할 생각을 했다. 마님은 모처럼 찾아온 정식에게 딸 이름을 낭이라는 예쁜 이름을 써서 보냈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그들 부부의 웃음소리와 함께 담을 넘는 날이 늘어갔다.

이듬해 황소 두 마리를 팔고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을 보태 그들 부부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이웃집의 산 아래 밭 천오백 평을 샀다. 그리고 딸아이가 네 살 되던 해에 연옥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들 부부는 금슬 좋고 부지런해서 하늘이 내리는 천복을 지녔다고 이웃들과 근동에 소문이 자자했다. 정식은 늘 달랑 위아래 방뿐인 집이 불편했다. 광이 없어 윗방에는 쌓아놓은 곡식이며 자잘한 살림들이 빼곡했다.

“여보, 이제 아이들도 점점 크고 방도 더 필요하니 내년 봄에는 우리가 산 개울 건너 저 밭에 새로 집을 지읍시다. 넓은 대청마루와 헛간 광까지 있는 집을 짓고 집 뒤 산에는 밤나무 대추나무를 심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해마다 새로 이엉을 올린 행랑채 지붕에는 박 넝쿨을 올립시다.”

만면에 웃음을 띤 정식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생각처럼 저도 새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실은 요긴할 때 쓰라고 이포 마님이 혼인할 때 주신 돈이 좀 있어요. 부족한 돈은 외양간

에 송아지만 남겨놓고 두 마리는 팔아서 보태면 어떨까요? 모두 낭이 아버지
가 부지런해서 새집도 짓고 살림이 느네요.”

“어디 나만 열심히 한다고 재산이 불어난답니까, 다 당신하고 약속한
목표며 당신 같은 아낙을 얻은 내 복이지요. 올 겨울에는 집지을 기둥과
서까래를 베어다 다듬어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지을 생각이요.”

벌써부터 그들 내외는 새 집을 지을 기쁨으로 들떴다. 그 겨우내 정식은
산에서 기둥과 서까래 감을 베어왔다. 그리곤 잘 다듬어 그늘에 말렸다.

이듬해 봄이 왔다. 언 땅이 녹기가 무섭게 팽이와 삽을 들고 정식은 집
터를 고르기 바빴다. 안채와 행랑채까지 터를 고르고 주춧돌을 놓고 나서
마을 사람들과 기둥과 대들보를 얻었다. 서까래를 얹자 집의 형태가 드러
났고 정식은 찰흙을 파다 짚을 썰어 섞어서 외벽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렇
게 새집에 남편이 매달리는 시간에 새참이며 점심을 해 나르고 밭일과 논
일까지 연옥이 쉴 사이 없이 해댔다. 장마철 전까지 집이 완공되어야 한다
는 생각으로 그들 내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기와집이었다. 회벽을 칠한 바람벽과 넓은 대청
마루, 그들 부부의 새집이 완공됐다. 행낭 채는 지붕에 이엉을 둘렀다. 외
양간과 측간 곡간을 행낭 채에 걸들었다.

이삿날이 되었다. 그들 부부는 그동안 한 번도 모시지 못한 이포 진사내
외를 모셔오려고 가마와 사람을 보냈다. 그동안 마음뿐이었던 효도를 하고
싶기도 했다. 딸처럼 사위처럼 진사내외분을 대접하고 모시고 하리라. 새
집들이를 할 떡과 술을 담갔다. 며칠 후 새 집 잔치를 하는 날이 되었다.

집 구경을 온 아랫말 윗말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들 내외를 칭
찬하며 떡을 먹고 술을 마셔댔다. 이포에서 진사 내외분이 도착하자 연옥
내외는 한달음에 달려가 안방으로 모셨다.

“세상에 우리 연옥이 최 서방과 이 집 짓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장하구나.”

대감과 부인은 딸네 집에 온 것처럼 뿌듯하고 흡족했다. 어린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 또한 대견스러웠다. 연옥이 차린 잔치 상을 물린 뒤 두 내외는 대문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집터를 살펴보던 진사의 안색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쫓쫓 새 집을 삼살 방에다 지었구나. 너무 불길한 기운이 이 터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게 혀를 차는 진사는 주역과 운세까지 보았다.

집 뒤 산의 형세는 거북 혈이었다. 거북은 물이 있어야 산다. 그 물길을 끊는 곳에 연옥내외가 집을 지었던 것이다. 더구나 바로 앞 냇가의 큰 바위는 거북이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리는 곳이어야 했는데 산의 혈에서 보면 큰 기와집이 가로 막아서 보이지 않았다.

삼살방(三煞方)은 그 해의 띠에 따라 방위가 바뀌는데 인간이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방위였다. 무언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란 예감이 진사의 마음을 휘감았다. ‘음 이 삼살방을 막을 방법을 찾아서 다시 와야 겠구나’ 차마 연옥내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옷소매를 붙잡는 연옥에게 다시 오마고 약속을 한 후 진사는 부인과 함께 가마를 탔다.

그 며칠 후였다. 이웃아낙이 넘어질듯 휘청거리며 연옥의 집 마당으로 뛰어 들었다.

“냥이 엄마! 빨리 나와! 냥이가 물에 빠졌어.”

“뭐라고요? 냥이가 어딘데요?”

“저기 개울 거북 바위아래 떡 감다 미끄러졌나봐.”

진사부인이 부탁한 모시옷을 바느질하던 연옥은 맨발로 개울로 달려갔

다. 거기 자갈위에 낭이의 축 늘어진 모습이 누워 있었다.

“낭이야! 낭이야!”

까무러칠 듯 불러대는 연옥의 소리가 들리는지 마는지 벌어진 낭이의 입에서 주르륵 물이 흘러나왔을 뿐 낭이의 눈은 꼭 감긴 채였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글썄 저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하고 먹을 감고 놀터니 연옥이 물에 빠졌다고 소릴 치잖아. 달려왔더니 벌써 저길 떠내려가 돌다리에 걸려있더라고……. 이 일을 어쩌나 응?”

이웃 아낙이 벌벌 떨며 하는 이야기들이 연옥의 귀에 들려 올 리 없었다. 낭이의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어가며 온몸을 주무르고 연신 낭이를 불러댔다.

“낭이야! 대답 좀 해봐! 눈 좀 떠봐! 아가 왜 이러는데. 엄마 여기 있잖아 응 낭이야?”

애절한 연옥의 부름도 노력도 허사였다. 차디차게 식은 낭이의 몸이 나무토막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 연옥도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평소 아이들 배꼽아래엿던 개울물이 이틀 전에 내린 장마 비로 크게 불어나 있었다. 여덟 살짜리 낭이에겐 개울바닥이 보일만큼 맑은 물의 깊이를 가늠할 판단이 부족했다. 한순간 물을 마시면서 자꾸 떠내려가다 의식을 잃은 낭이었다.

딸아이 낭이가 사라진 새집에선 그들 부부의 웃음도 사라졌다. 식음을 전폐한 연옥은 눈물과 한숨으로 날을 보냈다. 어느덧 낭이를 잃은 지 보름 정도 지나서였다. 연옥은 무망중에 잠든 덕이의 헛소리를 들었다.

“누나, 같이 가 개울물에 떡 깔을려 어여 나와.”

덕이의 움 몸이 불덩어리였다. 깜짝 놀란 연옥이 비상약인 청심환을 먹

였다. 정식은 턱이를 업고 뛰었다. 의원이 있는 곤재까지는 시오리가 넘었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한의원 문턱을 넘었을 때 등에서 축 늘어진 턱이는 경기를 하는지 흰자위가 눈동자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

“이런, 아이가 급성맹장 같네.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네. 한양 같으면 서양서 왔다는 양의들이 배를 찢고 수술을 한다지만 여기서는 역부족일세 안됐네 그려. 쫓쫓…….”

새벽녘 문 두드린 사람들의 경험을 잘 아는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복통에 먹이는 몇 가지 약초를 조합해 정식의 손에 들려주며 어서 가서 달여 먹이라는 말로 그들 부부를 내 보냈다. 연옥과 번갈아가며 턱이를 업고 집으로 오는 동안 가끔 신음소리를 냈던 아이가 방에 내려놓자 가늘게 뛰던 맥박이 멈췄다.

“턱아, 왜 이러니, 엄마 좀 봐! 우리 턱이 착하지. 어서 약 먹고 일어나자.”

연옥은 경황 중에도 화로에 숯불을 피워 약을 달였다. 정식이 아이의 몸을 주무르고 이름을 부르자 가까스로 눈을 뜬 턱이가 두 부부를 바라보더니 힘겹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맥박이 멈췄다. 연옥이 까무러쳐 있는 집에서 정식이 울부짖는 비통한 통곡소리는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절규에 가까웠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집에 닥친 비극에 모두 정신이 나간 그들은 부부 대신 한 모금의 약도 먹지 못하고 죽은 아들 턱이를 아비 품에서 빼앗아다 낭이 곁에 묻었다. 며칠을 실성한 듯 울부짖던 남편이 말없이 집을 나갔다.

“낭이야! 턱이야! 이리 오너라 네 아버지가 찾아 나섰단다. 어서 집으로 오너라?”

두 아이를 애타게 부르며 실성한 연옥은 남편이 떠난 쉼 다리가 보이는

개울가의 거북바위위에 앉았다. 낭이가 먹을 감던 바위였다.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던 그녀는 깜깜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남편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았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남편이 데리고 올 아이들을 생각해 따듯한 밥을 해놓고 개울로 갔다. 그리고는 바위에 앉아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다. 이웃아낙네들이 빨래를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먹을 것을 가져왔다. 아낙들은 아이들이 오면 밥해줘야 한다고 억지로 먹이고는 했다.

그 여름이 갔다. 남편 정식이 비렁뱅이가 되어 떠돈다는 소문이 돌았다. 까마귀 울음이 마을을 덮던 날 연옥의 눈앞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환영이 보였다. 한달음에 달려 나가던 그녀가 '침버덩' 물소리를 내며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얇은 개울물에 엎드린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것은 쉼 다리를 건너던 비렁뱅이었다.

그 후 사람들은 거북바위를 열녀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의 부항리 낮은 산 아래 개울로 흘러내린 바위에 얽힌 한 서린 이야기다.

참고자료

광주문화원『광주의 지명유래』2006

부항리 주민 구중서씨 구전 채록

〈집필 : 허정분〉